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7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18일(음력 1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옻칠 회화 담긴 연못에 연등 띄우니 경기도박물관은 5월 31일까지 박물관 전시마루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예술 세계의 진수가 담긴 작품 150여 점이 선보인다. 사진은 2월 10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파 스님과 주요 내빈들이 6m 규모의 수중 설치 옻칠 회화에 연등을 띄우는 모습. 〈관련기사 9면〉
글=신중일 기자, 사진 제공=경기도박물관

천도재 여니 '조세이 희생자 유골' 나왔다

관음종, 2월 6일 현지서
희생자 위한 천도재 봉행
수습 유골 모시고 회향해
대만 다이버 사망에 '애도'
관음종 "한일 정부 나서야"

신중일 · 김내영 기자

관음종(총무원장 권한대행 도각 스님)이 2월 6일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던 중, 해저 갱도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이 추가 수습됐다. 관음종의 지속적인 유해 수습·봉환 노력 속에서 이뤄진 뜻깊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관음종은 "2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탄광 갱도 입구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하던 중 희생자 유골이 추가 수습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수중 조사에서 인골 4점을 발견한 데 이어 2번째다.

관음종에 따르면 천도재가 엄수되던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를 진행하던 현장팀으로부터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관음종은 즉시 피야가 보이는 해변가로 자리를 옮겨 제단을 마련하고 새롭게 수습된 유해를 모신 가운데 천도재를 회향했다.

천도재는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해 DNA 감정 추진'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 발굴 조사의 원만한 회향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세이탄광 일제강점기 희생자 유해 수습 기원 천도재' 봉행단장을 맡은 관음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각 스님은 "유족과 양국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다"며 "차가운 바닷속에 계신 희생자 유골을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해 수습 과정을 지켜본 총무부장 홍경 스님은 "80년 넘게 기다려 온 유족분들이 유해를 마주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하며,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 양국 정부의 합의대로 하루빨리 DNA 조사가 이루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월 7일 조사와 유골 수습을 위해 바다로 뛰어든 대만 다이버 웨이 수 씨가 조사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천도재를 봉행하며 유해 수습을 지원했던 관음종은 2월 9일 웨이 수 잠수사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음종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하며 비통에 잠겨 있을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고인을 굽어 살피시어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관음종은 안전한 유해 수습과 조사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관음종은 "80년 넘게 방치된 해저 갱도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은 민간의 열정과 십시일반의 후원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과제"라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해 수습을 위해서는 이제 한일 양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안전대책과 장비 투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정상회담합의 사항인 'DNA 감정'을 조속히 진행하여 희생자들의 유해를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 사업'을 선포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일본 현지에서 위령재를 봉행하며 조세이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과 관음종은 2월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한 해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나눔·현대불교신문 생명나눔 가치 알린다

2월 10일 MOU 체결
1년간 공동기획 진행
해외 지원사업 전개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026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글로벌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2월 10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사무처에서 공동사업 협업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공동 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를 전개한다. 기획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고 국내 나눔 활동을 비롯해 해외 의료·문화 지원 사업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공동기획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와 해외 지원 사업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했다. 일면 스님은 먼저 "지난 몇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대한 기획과 각종 보도를 성의있게 다뤄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의 기쁨을 알고 자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만큼 생명나눔과 현대불교신문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자"면서 "올 한 해 사업을 함께 잘 이끌어가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대불교신문은 3년 전부터 매해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구호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사회에 알리고 자비와 공존의 정신을 공유하는 데 힘써왔다"면서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 중 최고로 손꼽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올 한 해 긴밀하게 협력, 생명나눔 현장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 해외 지원 사업, 각종 캠페인 등을 올해 총 12회에 거쳐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을 방문, 올해 첫 해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2월 10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사무처에서 공동사업 협업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지원
- **지원 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지원 기간** : 1년
- **선발 인원** : ○명(스님은 별도 전형)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일(일)~31일(화)

※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9회 묘공학술상 변경

묘공당 대행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묘공학술상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진행합니다.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한마음연구』 제18집(2027년 2월 발행)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특히 2027년 묘공당 대행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2026년에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스님과 한국사회"와 "대행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특별 주제가 아니어도 묘공학술상의 심사 후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상 금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 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하화중생 자세로 국민 섬기겠습니다”

하정우 청불회장 취임법회 봉행
2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 등 200여 명 동참
“자비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청와대불자회는 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법회 후 단체 기념 촬영 모습.

“국민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섬기며,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하화중생’의 자세로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청와대 불자회장에 공식 취임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청와대불자회(회장 하정우, 이하 청불회)는 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청불회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실 불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재이전되면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3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의 헌등이 이어졌으며, 하정우 청불회장이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했다.

하정우 청불회장은 “불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청불회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말로 취임소감을 밝혔다. 하 회장은 “그간 청불회는 청와대 내 공직자 불자들의 수행 공동체로서 회원들의 불심을 돈독히 하고 불교계와 정부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불회가 친목 모임을 넘어 수행과 나눔, 자비의 실천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하 회장은 이어 “저는 국가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궤를 같이 한다”며 “서로에게 도반이 돼 힘이 되어 주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청불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AI 문명 전환 시대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AI는 인간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탐진치를 줄이는 지혜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완벽한 세상이 된다 해도 욕심이 지나치는 한 괴로움의 인과를 피할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최첨단 기술과 경제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괴로움을 줄여 가고,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명상 대중화’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표 삼아 사회 소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힘써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물론 청와대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청불회장 취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축하했다.

특히 청불회 고문을 맡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행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 온 청불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강 실장은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낸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청불회 역시 이러한 정신을 이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끝으로 청와대불자회는 강유정 부회장(청와대 대변인)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공정과 청렴을 근본으로 공익을 앞세우고, 약자의 눈물을 보듬는 따뜻한 공직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갈등은 화합으로,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어 모든 중생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발원합니다.…오늘 마음 모아 세원 서원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안국선원, 명상마을 진흥에 10억원 ‘쾌척’

2월 12일, 진우 스님에 전달
명상마을 보수·증축 등에 사용



한국 간화선의 전통을 선양하고 불교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성된 문경세계명상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 큰 보시를 실천했다.

선원장 수불 스님과 안국선원 신도회 임원진은 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 진흥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명상마을의 시설 수리·보수와 증축 등 원활한 운영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명상마을 건립 초기부터 수불 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훌륭한 도량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아직 운영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기금을 통해 완성도 있게 회향하고 ‘세계명상마을’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주요 종책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종단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심사 2월 20일에

2월 9일 예정 회의 돌연 연기
현우 · 석두 스님 자격 이상 없음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심사를 위한 회의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29차 회의를 열고 소청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심사 결정을 돌연 연기한 바 있다. 태성 스님은 “종단 내부에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라며 “향후 판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청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 성로 스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석두 스님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종회의원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김내영 기자

‘선명상중앙본부’ 본격 시행…선명상 정책 일원화

프로그램 연구 · 지도자 양성 등
본부장에 미래본부 사무총장
운영위원장에 총무원장 당연직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마음 평안에 기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운영 근거를 제도화했다. 이는 선명상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계종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선명상 사업을 총괄할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이하 선명상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열린 ‘불기 2570(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종단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온 중요한 결실”이라며 중앙과 지역 거점, 현장 밀착형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명상본부는 △선명상본부 운영 △선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선명상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선명상 관련 연구·학술 활동 지원 △국내외 선명상 단체·기관과의 교류 협력 △기타 선명상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조직은 선명상본부장과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본부장은 미래본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종무위원과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주요 사업과 예산, 운영 내규 등을 심의한다.

또 선명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에는 미래본부 사무국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으로 참여한다.

선명상본부의 재정은 종단 예산과 희사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 전반은 종단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김내영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장단 인사 단행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 임명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대폭적인 총무원 부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2월 6일자로 총무원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 교무부장에 경혜 스님, 교육부장에 덕재 스님, 재무부장에 보광 스님, 사회부장에 진철 스님, 규정부장에 거홍 스님을 임명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월도 스님은 전형위원회 위원에도 임명됐다.

월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대성사·포항 황해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다. 현재 경혜 스님은 분당 대광사 주지, 덕재 스님은 인천 황룡사 주지, 보광 스님은 서울 삼룡사 주지, 진철 스님은 서울 명락사 주지, 거홍 스님은 서울 성룡사 주지 등 소임을 맡아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6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군종교구, 한 해 10만 군불자 양성 원력 세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월 13일 신년회견

전후방 · 해외파병부대 위문 방문
불자 병사 데이터 확보 지속 관리
청년 출가장려로 예비군승 확보
법원 스님 "역할 하는 존재 될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법원 스님은 1월 27일~2월 6일 남수단과 오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현지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방문 모습. **사진 제공=군종특별교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한 해 10만명 군불자 양성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해외 파병부대 위문, 계층별 불자 데이터 종합 및 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 군 전법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2월 13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2026년 군종특별교구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사업 계획을 밝혔다. 핵심사업은 △호국불교 상징 사업 추진 △한 해 10만명 군불자 양성 △교구 홍보 활동 강화 및 행정·운영시스템 정착 등이다.

법원 스님은 2026년 군종특별교구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해 군불자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해외파병부대 위문을 꼽았다. 법원 스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아프리카, 중동 등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와 청해부대, 아크부대를 공식 방문해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불자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전한 바 있다. 법원 스님은 "올해는 전후방, 해외 각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군불자들과 장병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빛을 두루 비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전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내 불자들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자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장성 불자의 경우 현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영관 및 위관 불자 장교들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각군 사관학교와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불자 장교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야전 군승들과 소통, 임관 초기부터 꾸준히 인연이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황을 종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육군훈련소와 공·해군 교육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에서 수계하는 불자 병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사들이 전역한 후에도 신행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신병교육대 수계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신병교육대 10곳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교구 홍보 활동 강화와 행정·운영시스템 정착에도 진력한다.

사회의 탈종교화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소에 따라, 원활하게 군승을 파송하기 위해 군종교구 역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계획이다.

법원 스님은 "장학제도를 활용해 수행과 군승 활동을 희망하는 예비군승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교육기관과 종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군승 홍보 활동을 종립고등학교 청년 불자들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 불자들에게 출가를 장려하고 군승에 관한 인지도를 상승시켜 잠재적 예비군승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SNS 활용 법회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규정집 발간 △호국불교총본산 계룡대 흥제사 봉불식 및 낙성법회 봉행 등도 추진된다.

법원 스님은 "불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 마음의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불법 홍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감각으로 전하는 '친근한 불교' SNS로 만난다

조계종, 2월 6일 서포터즈 위촉
불교문화 등 숏폼·카드뉴스 제작



젊은 세대의 시선과 감각으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해석하고 대중과 소통할 '조계종 SNS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치, 조계종의 주요 정책과 활동 등을 친근하게 전달하며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의 진입 장벽을 허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총무원 미디어홍보실(실장 덕안 스님)은 2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조계종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서포터즈는 미디어홍보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젊은 감각의 SNS 홍보 콘텐츠 확충 △온라인 기반 불교문화 확산 및 접근성 확대 등을 목표로 SNS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된 5명의 서포터즈는 김다영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 정소담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학생, 지혜은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 문예린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학생, 전유니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이다.

서포터즈는 올해 1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매달 불교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불교 이슈 및 불교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숏폼 영상·카드뉴스 제작, 종단 주요 행사 취재 및 홍보 등이다. 미디어홍보실은 연 1회 워크숍을 열어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덕안 스님은 "여러분은 조계종과 대중을 잇는 소중한 가교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제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그 역할을 서포터즈와 함께 해 나간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즈 활동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불교의 모습,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이사회, 2026년도 예산 9965억원

2월 11일, 회의서 승인·의결
돈관 스님 "건학이념 구현"



2026년도 동국대 전체 예산이 약 9965억원으로 승인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1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5회 이사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예산으로는 △법인일반회계 217억원 △서울캠퍼스 3075억원 △WISE캠퍼스 1342억원 △법인수익사업회계 222억원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96억원이 편성됐다.

의료원 예산은 △경주병원 1807억원 △경주한방병원 29억원 △일산불교병원 2578억원 △일산불교한방병원 100억원 △분당한방병원 119억으로 편성됐다.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각급기관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했다.

또한 이사회에는 '2025회계연도 법인 산하 학교 추가경정예산'도 의결했다. 대상은 법인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곳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 목적사업 보조금과 수익자부담 경비를 반영해 92억원 증액한 706억원으로 추가 반영했다.

상정된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에서 이사회는 WISE캠퍼스 간호학부 A교수의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을 의결해 WISE캠퍼스로 돌려보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교원 인사 △기금 용도변경 △불용자산 폐기(매각) △대손상각 △2026회계연도 의료원 시설대여(리스) △WISE캠퍼스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기채) 승인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건학이념 구현, 청년불자 전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예비 초등생 1981명에 책가방 선물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은 2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KB국민카드, 동행에 2억원 후원
크레파스·색연필 등 13종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과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예비 초등학생에게 책가방과 입학준비물품을 선물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 아동복지사업 수행기관 243곳을 통해 1981명의 아동이 신청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세트와 입학 준비물품이 지원된다.

입학준비물품은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등 학교생활 필수품 13종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희망카드도 동봉됐다.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비자서 생산자로 전환을”

불교환경연대, 2월 11일 간담회
조계종에 범종단 거버넌스 제안
RE100 108사찰로…태양광 제시
기금 조성 등 로드맵 본격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환경연대는 2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불교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교계 차원의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불교계 환경단체가 선언을 넘어 실행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생명존중과 연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범종단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교 RE100’을 실현하자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 사찰이 수행과 전법의 공간을 넘어 생태전환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2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불교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 ‘RE100’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사찰이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중립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10월,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실천 사례를 만들고 있다. 협동조합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고양 법문사 옥상에 제1호 햇빛발전소(설치용량 42.42㎾)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법문사 햇빛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4만8313㎾h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CO_2) 저감량은 연간 22.18톤으로, 30년생 소나무 161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첫 번째로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범종단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제 조사에 기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이다. 사찰과 기관의 에너지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계획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선언적 차원을 넘어 예산 확보와 집행, 이행 점검과 보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조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탄소중립 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탄소중립 예산의 확보와 집행, 이행 과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행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진단과 건물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기술·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에너지공단의 건물지원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경 공고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단 차원의 공동 대응과 일괄 접수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웃 종교계의 사례도 소개됐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경기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전국 성당을 대상으로 일괄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교계 역시 범종단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안에 ‘RE100 사찰 50곳’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불교 RE100 108사찰’ 실현에 대한 포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불교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제는 종단과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실행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님께 세배하고 함께 명절 음식도 만들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월 12일 재단 산하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자비 온기를 전했다. 사진은 강정 꽃다발 만들기 활동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시설 방문
아동들에 자비나눔 선물 증정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설을 앞두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따뜻한 자비 온기를 전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2월 12일 서울 구로연꽃어린이집과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을 방문, 아동들을 격려하고 새해 희망을 나눴다.

이날 도륜 스님은 어린이집 입구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다과를 제공하는 ‘도륜 스님이 쏜다!’ 이벤트를 진행하며 활기차게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덕담과 함께 새해 선물을 증정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재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야외 마당에 새로운 놀이시설과 장남감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도륜 스님은 아이들과 한 팀이 돼 직접 강정 꽃다발을 만들고 시식하는 체험 활동을 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만끽했다. 임은호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신임 회장 임문우 변호사

2월 7일 서울 조계사서 취임식
임 회장 “후배 지원 힘쓸 것”
대불, 대학생 9명에 2100만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 제32대 회장에 임문우 변호사〈사진〉가 취임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월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1·32대 회장이·취임식’을 거행했다. 200여 대불련 동문회원들이 참석,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임문우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인재불사를 강조하며 후배 동문 결집의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임 회장은 “1950년대부터 90년대 학번 동문을 이어 2000년대 이후 후배 동문들을 육성하고 조직화해 총동문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전체 동문들의 화합을 도모, 대불련 후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행활동 활성화 △2027년 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업사업 준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학생 불자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과 함께 대학생 9명에게 총 2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베푸는 삶’을 강조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고 서로 어려움을 감싸며 훗날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문우 신임 회장(경북대 법학과 82학번)은 경북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대불련 총동문회 대구경북 지부장과 사단법인 대불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에서 임문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 졸업식…44명 졸업

2월 9일 전승관 대강당서 개최
“정진의 법력, 세상 밝혀주길”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은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강당에서 제4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동방불교대학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범패학과 교수 일운 스님, 태호 스님, 실담범자 교수 법헌 스님 등 교수진과 총무원 각 부·실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방불교대학은 졸업식을 통해 불교학과 37명, 범패학과 7명 총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각과 최우수상 시상을,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1학년 최우수상 시상을, 학장 법담 스님은 장려상을 시상했다. 법담 스님은 또 보현장학회와 화엄회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대신 시상했다. 장학금은 상진 스님, 재홍 스님, 법담 스님 등이 후원해 마련됐다.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사찰 불사와 끊임없는 수행정진이라는 고된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치하를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은 장차 불국토를 일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에서 절차탁마하며 닦아 온 학문과 인격, 그리고 정진의 법력이 종단과 우리 사회를 환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마다 법의 향기가 피어나고 머무는 곳마다 평화와 화합의 꽃이 만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법담 스님은 식사에서 “졸업하면 다음 단계는 좀 더 깊은 경전 공부와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앙승가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부디 열려 있는 수행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축사에서 “종교의 의무는 전법과 수행에 있다”면서 “여러분이 날로 더욱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전법 성과는 높아지고 종단 또한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혜승 대종사 수행 전법 본분사 되새겨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당 혜승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2월 11일, 의성 고운사 일대서 열려
종정 성파 스님 게송으로 추모 전해
진우 스님, 살아온 궤적 회고하며
“도량 재건 불사 원만 회향 증명”

의성 고운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2월 7일 원적에 든 송암당 혜승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11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일대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포교와 전법의 원력으로 한평생 포교 현장을 지켜오다 지난 2월 7일 홀연히 원적에 든 송암당 혜승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11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일대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에서 의장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를 통해 혜승 대종사의 업적을 되새기고 게송을 읊으며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혜승 대종사는 인욕행을 통한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과 경과 율을 두루 익혀 수행했으며 평생 불법홍포에 힘쓴 선지식”이라며 “법공양을 잘 간직해 역겁에 매하지 말고 진리의 삼매악을 누려 달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혜승 대종사의 삶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막힘도 걸림도 없이 구순(九旬)에 이르도록 화광동진(和光同塵)했으니, 이는 하화중생(下化衆生) 길을 몸소 보여 준 지남(指南)이라 할 것이요 만세의 모범이라 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화마가 휩쓸고 간 고운사 도량의 재건을 발원한 스님은 “겁화가 휩쓸고 간 등운산 자락에서 종단과 교구의 사부대중은 회두토면(灰頭土面) 보살정신으로 새싹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산림을 되살리며 고운사 도량을 재건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대종사께서는 열반정토에 오래 머물지 말고 속환사바해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후학들을 위해 들려준 혜승 스님의 불이법문을 그리워했다. 주경 스님은 “중생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며 해맑게 웃던 존안은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울림”이라며 “후학들은 대종사가 열어 보인 길을 따라 향상일토의 정진을 이어 나가겠다. 수행과 전법의 본분사를 되새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조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비구니 수행자들의 길을 격려해 준 그 은혜를 5000여 비구니 대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새긴다”면서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도를 대표해 호성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삼배로 인사했다.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대종사는 1951년 16세에 논산 개태사로 출가, 6년 동안 행자생활을 했다.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판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8년 해인사 승가대학 사집과를 졸업하고 의정부 도봉산 원각사 주지, 양주 회암사 주지, 의정부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의정부 불교원 정혜사를 건립했으며, 유치원 및 운전자불자회, 군법회 등 지역포교와 전법에 매진했다.

2022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제8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2008년 10월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2012년 양주 연화사를 창건, 현재까지 연화사 주지, 고운사 회주로서 후학들을 제접해 왔다.

‘옛사람 스스로 가니 난간에 눈이 쌓이고(故人自去雪欄干) 서둘러 가는 저녁 구름 고갯마루 옥안장 삼았구나(趨走暮雲嶺玉鞍). 달도 숨은 텅빈 산에 석장하나 의지 했는데(無月空山依錫杖) 조그만 암자 풍경소리 그 곡조 외롭고 쓸쓸하구나(小庵風磬曲孤寒)’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2월 7일 밤 11시 45분, 법납 71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다.

동국대 “로터스관 불사, 안전 공사 기원합니다”

2월 10일 안전기원법회 봉행
돈관 스님 “안전 최우선으로”


2월 10일 열린 동국대 로터스관 신축 안전기원법회에서 현장소장의 선창에 맞춰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참석 대중들이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동국대 로터스관 건축 현장 무재해로 나아가자!”

동국대(총장 윤재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신축 불사의 안전 공사를 다짐하는 무재해 구호가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

동국대는 2월 10일 로터스관 공사 현장에서 ‘로터스관 신축 안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 등 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돈관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은 부처님께 향과 차를 올리고 로터스관 신축 불사가 원만회향하길 기원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봉독하며 관세음보살에게 자비와 지혜를 구했다.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동국대 120년 역사에서 로터스관 신축불사를 위한 시절인연이 드디어 도래했다”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명심하고 동국인의 염원이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로터스관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와 발원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 연구 복합시설인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 위한 3700km 행진 108일째날 회향

스님 17명 ‘평화를 위한 행진’
텍사스~워싱턴 DC 도보순례
美 연방에 베삭데이 휴일 요청

‘평화를 위한 행진(Walk for Peace)’이 미국 내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님들은 지난해 10월 순례를 시작해 108일째인 2월 10일 목적지인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스님들의 순례와 시민들의 반응을 ‘더 리치몬더’, ‘VPM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지난해 10월 26일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 모든 이들의 마음챙김’을 주제로 20명의 스님들은 텍사스 포트워스를 출발, 워싱턴 DC까지 10개의 주를 횡단하는 3700km의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침묵 속에 도보순례를 이어 나가는 스님들의 모습은 미국 시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순례단을 이끄는 판냐카라 스님의 뜻에 동참한 스님들은 모두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스님들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는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서구권의 스님들도 함께했다. 순례는 엄격한 계율에 따라 매일 좌선과 예불, 오후불식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순례단에 이어 지원 차량과 캠핑카가 뒤따르며 스님들을 보조했다. 순례단은 오전에 걷기 시작해 점심공양 후 요청이 있는 경우 경로에 있는 사찰이나 광장 등에서 약식 법회를 봉행하거나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평화를 위한 행진은 기간 중 몇 번의 사고를 겪었다. 11월에는 트럭이 순례단을 덮치는 사고로 스님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스님은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결국 순례를 중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순례단은 평화를 바라는 일념으로 순례를 이어갔다.

이러한 소식들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순례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순례단이 목적지인 워싱턴 DC에 가까워지자 순례단을 보기 위한 인파들이 점점 늘어났고, 일일 도보순례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늘었다.

특히 순례를 시작한 지 100일 째였던 지난 2일, 리치먼드시에 입성한 순례단을 대니 아불라 리치먼드 시장과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시청 앞에서 맞이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을 ‘평화를 위한 행진의 날’로 선포하며 기념했다.

2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순례단은 워싱턴 국립 대성당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대중들과 함께 호흡명상을 진행했다. 순례단을 이끈 판냐카라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자 의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을 이 순간으로 되돌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을 마중 나온 시민들은 “세상에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인종, 신념, 민족에 상관없이 웅크렸던 곳에서 나와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며 기뻐했다.

순례단은 2월 11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국제 부처님 오신날인 베삭데이를 미연방의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미의회에 요청한 후 링컨 기념관에서 순례를 회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100일째 되던 날 리치몬드시에 입성한 순례단의 모습. 사진 출처=Wtop 뉴스



천진불 하모니로 빚은 어린이 포교 10년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창립 10주년 합창제 개최

11개 사찰 참여…음악회도
노래로 체득한 불교의 가르침
지속 가능한 포교 모델 모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서 찬불가와 동요를 부르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열고, 지난 10년간 이어 온 어린이 포교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합창제는 지역 여러 사찰의 참여로 일군 어린이 포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는 2월 8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열 번째 사랑, 빛으로 희망으로 온 천진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 지역 9개 사찰 합창단과 어린이 200여 명이 동참해 희망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참여 어린이를 격려하기 위해 회장 영산 스님과 총재 지현 스님,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포교부장 정무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미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객석을 메웠다.

합창제 오프닝 무대는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단의 '행복은 여기 지금'으로 시작됐다. 이어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부산 혜원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 부산 무진선원 무진선재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청소년합창단, 창원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창원 종문사 종소리소년소녀합창단, 김해 동림선원 은암어린이청소년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찬불가와 동요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당초 참가 예정이었던 제주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참가 어린이 2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대합창이 펼쳐지며,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이날 무진선원은 5년 연속 참여한 천진불에게 축하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연합회는 참여 어린이 전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창립 10주년은 어린이 포교의 이정표가 됐다. 연합회는 지도법사 교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재정과 인력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 왔다. 아이들은 10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 주며, 완성도와 집중도를 갖춘 합창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총재 지현 스님은 연합회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순수한 마음과 노랫소리가 모여 큰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지금은 어린이인 단원들이 앞으로 청소년과 청년으로 성장해 사회를 밝히는 주역이 될 것이며, 합창단 활동이 가정과 사회, 나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장 영산 스님은 "10년 전 어린이 포교의 길을 모색하며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를 돌아봤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도 합창을 매개로 어린이 포교의 연결고리를 이어 왔으며, 전국 사찰로 참여가 확대됐다"며 회고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어린이 합창과 찬불 활동을 통해 불교의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성장이 무대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016년 4개 사찰 어린이합창단으로 출범해 현재는 11개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합창제를 개최해 왔으며, 음악캠프와 소규모 음악회 등을 병행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 음악회와 가족 찬불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연합회는 합창과 음악을 매개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계사, 선명상 지도자 2급 과정 첫 수료

2월 9일 39명 수료자 배출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가 선명상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2급 자격과정을 개설해 3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조계사는 2월 9일 '선명상 지도자 2급 자격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스님과 조계사 종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과정은 선명상의 이론 이해부터 실제 지도에 필요한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총 6회차로 진행됐으며, 선명상의 기본 철학과 수행, 상담적 접근을 균형 있게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과 홍순화 행복선명상센터장이 맡아 진행했다. 하림 스님은 선명상의 이론적 토대와 불교 경전에 기반한 수행 이해를 중심으로,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토대로 한 불교명상 이론과 상담이론 강의를 맡아 지도했다. 홍순화 센터장은 호흡 명상, 오감 명상, 몸느낌 명상 등 실습 중심의 선명상 수행을 이끌며 참가자들의 체험적 이해를 도왔다.

조계사는 "선명상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개금종합복지관, 190세대에 명절 선물

15만원 상당 식료품 · 생필품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11일 관내 지하 1층에서 '2026년 설 명절 정(情)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90세대에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떡국떡과 식용유, 쌀 10kg, 주방세제, 강정, 죽, 물티슈 등으로, 세대당 15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지원됐다.

이번 나눔은 넥센월석문화재단, KB국민은행 기아대책,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진지역세무사회, 사단법인 미소원, 고려대학교 여성체육인회 등 지역 기관과 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140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모였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명절 나눔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베트남 땀쭉 사원, 불교 교류 업무협약

2월 6일, K-불교홍보관 개관식
수행 명상 중심 국제 교류 거점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응우옌 쑤언 쭝 땀쭉 사원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 문화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베트남 땀쭉 사원이 불교 수행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양 사찰은 2월 6일 베트남 땀쭉 사원에서 K-불교홍보관 오픈식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불교 수행과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이어 가는 교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약식은 땀쭉 사원 응우옌 쑤언 쭝 대표와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K-불교홍보관 컷팅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K-불교홍보관은 한국불교의 명상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이 정립해 온 선명상 수행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명상의 핵심 내용을 베트남 현지에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반영해 오픈식 이후에는 정여 스님의 선기공 명상 체험과 고신가 명상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진행됐다.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땀쭉 사원은 베트남 정부의 관광특구 정책과 민간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불교 단지로, 최근 글로벌 관광·순례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공간에 K-불교홍보관이 마련된 것은 한국불교 수행과 명상 문화를 알리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어사와의 교류 역시 단발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템플스테이와 수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기적 불교 교류를 염두에 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60~70km 떨어진 김방지역에 자리한 땀쭉 사원은 사찰과 자연경관, 관광 인프라를 아우르는 대규모 불교 관광단지로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삼세불궁과 관음전, 법주전, 옥탑 등 주요 전각이 조성돼 있으며,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져 수행과 관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2019년 유엔 베삭 세계불교행사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알려지며, 현재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불교 순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문홍법사·보현, '공양미 나눔' 협약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분



사찰에 모인 공양미를 지역 복지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나눔 모델이 부산에서 출발했다.

관음종 무문홍법사(주지 호명 스님)는 2월 9일 경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보현(이사장 정혜선)과 '공양미 나눔사찰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문홍법사는 사찰에 보시된 공양미를 보현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보현은 이를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공양미는 전문 복지기관을 통해 관리·배분된다.

호명 스님은 "공양은 사찰 안에 머무를 때보다 이웃의 삶으로 이어질 때 더욱 온전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호흡하는 실천 불교의 길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이사장은 "사찰의 보살행이 복지 현장에서 신뢰받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한 전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불교聯·금강자비회, 자비나눔 한마당

2월 10일, 학생 67명에 장학금
"불자 정성으로 미래 희망 밝혀"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와 금강자비회(이사장 진정혜)는 2월 10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5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열고 학생 67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3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자비나눔 한마당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라며 "오랜 시간 원력을 세워 나눔을 이어 온 불자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로 오늘의 장학금이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져 다시 세상에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고문 원행 스님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종교의 역할과 나눔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며 "겨울을 견딘 매화가 향기를 내듯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혜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꿈을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받은 마음을 훗날 다시 사회에 나누는 따뜻한 인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운 스님은 축사에서 "요익중생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이라며 "오늘 행사는 보살행과 자비행의 실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오랜 나눔의 전통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장학사업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학업 정진과 사회 환원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반야사 혜명 스님, 사회공헌 감사패 받아

2월 9일, 창원시청서 시상식
저소득 가정에 백미 기부 공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앞장서 온 혜명 스님(창원 화개산 반야사 주지)이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는 2월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025 이웃돕기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반야사 혜명 스님과 경문 스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호 희망복지팀장 등 기관 관계자와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배려와 사랑 덕분에 지난해 39억원의 기부금이 마련돼 8만3000여 가구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어 준 모든 기부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소득 세대에 백미(10kg) 300포대를 기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혜명 스님은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 묵묵히 이어 온 나눔이 이렇게 큰 격려로 돌아온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동참이 있었기에 나눔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쌀 나눔을 꾸준히 이어 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지난해 기부와 나눔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 6곳, 단체 5곳, 개인 15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르신 위한 마을 순회 공양

2월 한 달간 75명에 식사 대접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2월 한 달 동안 직접 지역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순회 공양을 개최하고 있다.

2월 11일 남해 봉화에서 열린 공양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장충남 남해군수, 이상일 삼동면장, 김동수 화천이장, 이진우 양화금 이장, 최강환 내동천 이장 등이 참석해 화천·양화금·내동천 지역의 어르신 75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함께 숨 쉬는 도량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올리는 일 또한 수행이자 자비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멀리 절까지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공양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앞으로도 마을을 찾아 공양과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공양을 마련해 주신 승원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자비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과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며 말했다.

용문사는 2월 6일 둔촌을 시작으로 지족, 금천, 삼화, 갈현, 화천, 양화금, 내동천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했고 이어 2월 27일까지 순회 공양을 이어 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호남 전통燈 지켜 온 20년 예술혼

지역 불교人 장진익 전통등 작가

1996년부터 전통등 연구 매진
8년 전 고창에 작업실 설립해
광주 전남 등서 창작활동 펼쳐
'한국의 탈' 해외 순회전시 중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지로 만든 전통등을 연구 · 계승하고 있는 장진익 작가.

전통등(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작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인력과 인프라, 전시 환경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더욱 드물다. 호남을 중심으로 전통 한지등을 만들어 온 장진익 작가는 불교의 빛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내는 작가다.

장 작가가 전통등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1996년부터 전통등 복원과 연구를 시작했던 선배 작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등의 세계를 접했다. 전영일·백창호·인송자 등 홍익대·동국대 미술대학 출신 선배 작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작업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당시만 해도 전통등을 아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는 일부터 직접 해야 했죠."

그는 2001년부터 대나무 골조를 만들고 한지를 입히는 전통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열리던 전통등 강습과 전시에도 선배들과 함께 참여하며 현장을 통해 기술과 감각을 익혀갔다.

한지 조명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그는 전영일 공방에서 불교 전통등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장 작가는 전통등과 한지 조명을 아우르며 다양한 전시 무대를 경험했다. 원주 한지문화제 초대전을 비롯해 필룩스 조명 역사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상품 전시 등에서 한지등의 현대적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후 전영일 공방 소속으로 서울 연등회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불교 조형물 작업을 이어갔다. 그가 참여한 작업은 대형 봉축탑 제작부터 전통등 전시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석가탑·미륵사지석탑 봉축탑을 비롯해 청계천 전통등 전시, 봉은사·조계사 전통등 전시 등 수많은 현장을 거쳤다. 서울 연등회 공모전에서는 연속 2회 본상을 수상하며 초대 작가로 꾸준히 활동했고, 2014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약 8년 전 그는 서울을 떠나 지역으로 내려왔다. 현재는 전북 고창에 작업실을 두고 광주·전남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 대부분이 서울·경기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에는 거의 없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전통등 작업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전통등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는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결국은 예뻐야 한다. 보는 사람도, 만드는 저 자신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시선은 이제 세계로 향한다.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한국 탈'을 소재로 한 한지 작업을 순회 전시 중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앞으로는 민화, 설화, 한국적 서사를 한지등으로 풀어내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소재와 형식, 두 가지 모두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화엄사, 제6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2월 27일~3월 29일
프로 · 휴대폰 부문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화엄사 홍매화를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가 올해도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1일간 '꽃피는 순간, 꿈이 피어난다'를 주제로 제6회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6년에 촬영한 홍매화·들매화 사진만 출품할 수 있다. 총상금 규모는 1000만원으로, 대상부터 각 부문별 수상까지 다양한 시상이 이뤄진다.

사진 출품은 화엄사 홈페이지 '홍매화 콘테스트'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개인·무허가·무보험 드론 촬영은 금지되며, 공익 목적의 촬영은 촬영 1주일 전까지 종무실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품작과 수상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되며, 개인 활용 시에는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심사 결과는 4월 27일 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홍매화 개화 상황은 화엄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라이브 캠을 통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중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뇨엔, 창종 90주년 법요식 봉행

2월 8일 도쿄 응현원서



재단법인 신뇨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2월 8일 일본 도쿄 총본산 응현원을 비롯한 전 세계 정사에서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신뇨엔의 100년 미래를 향한 비전 선포와 함께 전 세계 신도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일본 내 109개 사원 등 해외 46개 사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기념사에서 "창종 10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세계의 종교를 목표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인도와 환희 △봉사 △접심(Sesshin) 등 세 가지 이타행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전국 사찰들 설 자비나눔

(사)붓다, 떡국 500인분 나눔
문빈정사, 자립준비청년 도와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자비행


사단법인 붓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1일 지역 주민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도 자비행을 이어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사찰과 불교 단체들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 마이산 탑사 회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월 11일 붓다복지관에서 열린 떡국 나눔행사에서 약 500인분의 떡국이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과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진 스님(상임이사, 천지사 주지)은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는 자비행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는 2월 9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설 맞이 물품 꾸러미 지원식'을 열고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은 김미자 불자의 기부로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현재 광주 동구에는 자립준비청년 69명이 있으며, 이날 문빈정사는 이 가운데 40명에게 총 600만원 상당의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에는 사과, 훈제오리, 돼지고기, 햇반, 라면, 떡국 밀키트, 미역국, 견과류, 수건, 물티슈, 세제, 문화상품권 등이 담겼다.

주지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역량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2월 11일 자비신행회 나눔공간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한 할아버지 스님의 응원의 설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물 꾸러미에는 떡국 밀키트와 소고기, 치킨, 과일, 라면 등 식료품을 비롯해 섬유유연제, 세제,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이 푸짐하게 담겼다. 정성껏 포장된 선물은 광주지역 5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일시보호소 등 총 6개 시설에 전달됐다.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떡국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끓여 먹으며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는 2월 10일 육화경당에서 대전 중구청에 쌀 6000kg을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관내 149개 경로당에 전달됐다.

용담 스님은 "올해 설날에도 조금이나마 쌀을 나눌 수 있어 다행한 마음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철원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는 2월 6일 병오년 설을 맞아 철원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20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심원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철원군은 이를 관내 6개 읍·면 저소득층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현 스님은 "설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태종 NGO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는 1월 29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3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원주 성문사에서 마련한 건강용품 등으로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장지환 성문사 신도회장,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 등 후원자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문경 불교계 "화합으로 희망찬 새해"

2월 7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문경시불교연합회(회장 상오 스님)는 2월 7일 문경 온누리체육관에서 병오년 새해 맞이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직지사 문장 황산 혜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드라망 제망찰해(製網剎海)처럼 이 세상은 연결돼 있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며 고맙다고 느낄 때 그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불교연합회장 상오 스님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승 스님, 묘안 스님, 명주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명순, 박영희, 황영숙, 문기원, 손정련 불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선운사, 성원 대종사 44주기 추모재

2월 6일 대웅보전서 봉행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의 44주기 추모재가 2월 6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주지 경우 스님과 문도스님들, 본말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대우 스님은 "은사스님의 44주기 추모재를 정성껏 준비한 경우 스님과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성보박물관에서 불기 2570년(2026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연등회 '다시 꿈이 시작된다'

2월 6일 봉축위 회의 개최
2026년 봉축행사 본격 준비



불기 2570년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가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사진〉

2월 6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 익산 관음사 덕림 스님, 남고사 석초 스님과 보문종·천태종·용화종 대표 스님을 비롯해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및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봉축위원회 구성, 봉축행사 계획안,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자들의 동참으로 봉축행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부처님의 뜻이 전북도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봉축 슬로건은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로 정해졌다. 전북 봉축위원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를 봉축 기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봉축의 서막은 4월 25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에서 열리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로 오른다. 이어 전주 팔달로, 백제로, 혁신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송천동, 아중역, 팔복동 중앙분리대 등에 약 4000여 개의 거리연등과 LED 연등이 설치된다.

연등축제는 5월 16일 전라감영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장엄불 점등과 함께 본격 개막된다. 이날 연등행렬은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따라 다시 감영으로 돌아오는 약 2.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LED 연등 나눔도 펼쳐질 예정이다.

연등축제와 함께 '아미따유스 청소년 페스티벌'이 보컬, 댄스, 밴드, 국악 등으로 영역을 넓혀 청소년 참여를 확대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를 통해 전주 지역의 불교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 불교대학·대학원 졸업식

2월 7일, 121명 졸업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7일 청풍루에서 '제31기 불교대학 및 대학원 졸업식'을 개최했다. 121명의 졸업생 및 수료자들은 수행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공부하고 실천하면 10년 수행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현재 건립 중인 선명상센터의 주인공으로서 졸업 후에도 정진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한국 불교미술 진수, 일본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도쿄국립박물관,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展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고려 불상, 불화 등 전시
한일 소장 오백나한도 2점
나란히 전시돼 눈길 끌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 수대장존자(사진 왼쪽)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제23 천성존자(사진 오른쪽). 도쿄국립박물관에 나란히 전시된다.

고려 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한신앙은 성행했고, 이를 불교회화라는 조형언어로 시각화한 것이 '오백나한도'다. 하지만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몇 폭밖에 전해지지 않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제92 수대장존자 △제125 진보장존자 △제145 희견존자 △제170 혜군고존자 △제357 의통존자 △제427 원원만존자 등 6폭이 소장돼 있다.

800년 전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평안을 염원했던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2점이 일본에서 나란히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관장 후지와라 마코토)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초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4월 5일까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본관 특1·2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7건 25점 및 도쿄국립박물관 소장품 16건 16점 포함 총 33건 41점이 선보인다.

전시는 한국미술의 명품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1장 '고려-아름다움과 신앙'에서는 세련된 장식미가 넘치는 고려 불화와 불상, 사경 등 신앙의 결실과 함께 화려한 귀족 문화를 보여 주는 청자와 금속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아름다운 꽃잎 모양의 접시나 잔과 잔받침 등, 같은 모양의 청자와 금은기를 함께 전시해 고려 시대 공예 기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소장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가 나란히 전시되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 수대장존자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제23 천성존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장 '조선왕조의 궁중문화'에는 정조의 수원 화성 방문 행렬을 기록한 '화성원행도'와 흥선대원군의 기린흉배 등을 선보인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와 예술은 위기 때마다 간극을 잇는 다리가 됐으니 이번 전시는 그 다리 위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명암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함께 환수한 1918년 작 비로자나삼신불도.

연구단체-사찰 협력으로 불화 환수

동북아불교미술硏 · 월명암
2월 21일 공개 환수식

해외로 유출됐던 한국불교 성보문화유산이 연구자의 학술적 확인과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국내로 성공적으로 환수됐다.

양산 월명암(주지 행안 스님)은 "월명암 신도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자발적인 후원으로, 독일로 유출됐던 '비로자나삼신불도(毘盧遮那三身佛圖)'를 최근 국내로 환수하게 됐다"고 2월 8일 밝혔다.

이번 환수는 기존 정부나 대형 기관 중심의 문화유산 환수 방식과 달리, 연구자와 사찰, 신도들이 협력한 민간 주도형 환수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환수의 결정적인 계기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의 학술적 판단이었다. 연구소는 해당 불화가 1918년에 제작된 기년명 불화로, 완호정희 스님과 제자 낙현 스님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20세기 전반 영남 지역 불교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성보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 작품은 제작 연대가 화기에 명확히 기록된 '기년명 불화'로, 제작 시기와 작가가 확정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1918년 작 비로자나삼신불도'는 지난 1월 21일 사찰에 도착했으며, 오는 2월 21일 오전 11시 월명암 법당에서 스님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환수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고요한 마음 바탕에 명확한 통찰

㉚ 정혜쌍수(定慧雙修)

定 慧 雙 修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정혜쌍수를 주창하며, 선정의 바탕 위에서 통찰의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기불교의 계정혜(戒定慧) 삼학 가운데 특히 선정과 지혜를 중시한 가르침이다. 당시 불교계는 경전의 이론적 탐구에 치우쳐 실천적 지혜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좌선에만 몰두해 교학의 논리적 정합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조국사는 정과 혜를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닦아야 함을 역설하며, "입으로는 부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으로는 부처의 뜻을 행하며, 정과 혜를 쌍으로 닦는 것(定慧雙修), 이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설하며 대중을 독려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다. 붓다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여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삶의 실상을 적확하게 통찰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거듭 설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사마타[定]와 위빠사나[慧]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마타는 '없앤다'는 뜻이니 온갖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고, 또 '굴복'이라는 뜻이니 모든 감각기관의 나쁘고 훌륭하지 못한 것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또 '고요하다'는 뜻이니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섯 가지 욕망을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탐욕·성냄·어리석음의 혼탁함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정이라고 한다."

즉, 사마타는 번뇌의 방지와 소멸을 통해 심신의 고요한 안정을 뜻한다. "위빠사나는 바르게 보고, 분명히 보고, 능숙하게 본다는 뜻이고, '두루 본다', '순서대로 본다', '다른 모양으로 본다'는 뜻이니,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는 존재와 마음의 실상을 정확하고 다면적으로 통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를 토대로 조화를 이룰 때 수행은 삶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지니는 공부가 된다. 고요한 환경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은 비교적 쉽지만, 이해관계와 시비가 얽힌 현실의 삶에서 그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찰에서 비롯된 판단의 힘이 필요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건 속에서도 고요하고 진실을 지키고자 수행을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처럼 마음 쓰다가도 비난과 갈등 속에서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은 평소에 닦아온 통찰의 힘이 충분히 익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수행이란 다툼과 소란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중심에서, 마음의 고요와 삶의 진실을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국대, 인도 대학들과 교류 협력 논의

나란다대학 · 가우담붓다대학 방문…문화교류 · 학술탐방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월 20~30일 인도 북부 나란다대학(Nalanda University)과 가우담붓다대학교(Gautam Buddha University)를 방문해 학생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동국대가 건학120주년을 맞아 인도 문화 교류활동 및 학술탐방을 위해 인도 현지에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한 52명 규모의 방문단을 파견하며 성사됐다.

방문단은 1월 23일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라즈기르에 위치한 나란다대학에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과 함께 나란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출신 국가의 언어로 불경독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단은 1월 29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 노이다에 위치한 가우담붓다대학을 방문했다. 가우탐붓다대학은 인도인들의 한국 문화 관심 증가에 따라 '자체적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향후 동국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도 닦는 사람의 그림”…성파 스님 ‘선예’를 만나다

경기도박물관 ‘성파선예’展
개관 30주년 기념해 개최
수중 옻칠회화, 도자불상 등
성파 스님 작품 150점 전시
“우리 모두 도 닦는 사람”

용인=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작품이 서구의 예술과 다른 것, 차별화된 것은 바로 ‘도 닦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도 닦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도를 닦고 있어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2월 9일 열린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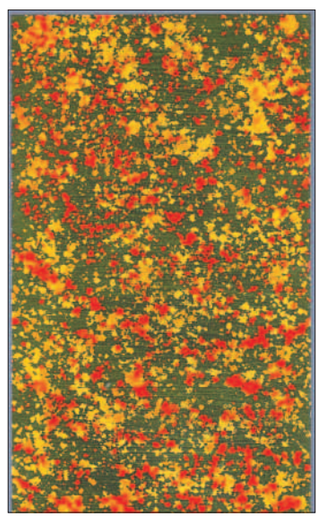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수좌들을 제접하는 선지식인 성파 스님이 깨달음의 자리를 내보이는 방법은 할과 방에만 있지 않다. 스님은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화업(畫業)을 펼치며 ‘선(禪)’의 진수를 보여 준다. 그래서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세간에서는 ‘선예(禪藝)’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스님이 내보인 ‘깨달음의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직무대행 박본수)은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박물관 전시마루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개최한다.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통도사 서운암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삼천불전(三千佛殿) 도자불상 일부, 장경각(藏經閣) 16만 도자대장경판의 일부, 그리고 불교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작품 등 총 15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6m 규모의 수중 설치 옻칠 회화 등 실험적 연출을 통해 ‘선예’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특별전 ‘성파선예’ 전시 모습. 성파 스님이 조성한 도자삼천불상과 옻칠회화 ‘미륵존’이 전시돼 있다.



2025년 신작 옻칠회화 ‘2025-020’.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영겁(永劫)-아득하고 먼’에서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아주 먼 옛날, 혹은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우주의 시작점을 표현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주목할 작품은 성파 스님이 직접 만든 ‘옻칠 그림’이 있다. 끈적한 질감의 옻을 성파 스님은 붓으로 억지로 그리는 대신, 물처럼 흐르고 바람에 날리듯 자연스럽게 굳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통해, 물질(옻)이 정신(예술)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제2부 물아불이(物我不二)-니가 내다’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삼천불전 도자불상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 있는 불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귀여운 아기 부처님도, 근엄한 부처님도 모두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전한다. 물 속에 비치거나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진짜와 가짜,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제3부 문자반야(文字般若)-글자 너머’는 불교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것보다 그 뜻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흙을 구워 만든 ‘반야심경 도자판’으로 탑을 쌓았고, 옻으로 쓴 글씨(칠서)들을 전시했다. 눈에 보이는 글자(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깨달음(알맹이)을 보라는, 스님이 대중에게 던지는 화두다.

‘제4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마음대로’는 성파 스님이 가장 자유롭고 즐겁게 작업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전시 제목 그대로 ‘마음대로’ 유희하는 알록달록한 색깔과 기하학적인 무늬가 가득한 옻칠 그림들이 선보인다.

“옻칠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성파 스님이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 손이 가는 대로 맡겨 둔 그림들이다. 그랬기에 작품을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오로지 관람객들의 역량과 몫에 달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박물관은 “서양 예술의 ‘무의식 기법(오토마티즘)’과 비슷해 보이지만, 스님의 작품은 수행을 통해 옻과 하나가 된 경지에서 폭발하듯 그려 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작가의 의도나 계획 없이, 스님 자신마저 잊고 오직 ‘옻칠’ 그 자체가 되어 버린 몰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는 벽에 걸린 작품 외에 공중에 내건 옻칠 염색 작품과 수중에 잠긴 옻칠 회화 작품이 연출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성파 스님은 개막식 당일부터 3일간 드론과 비행선을 이용한 옻칠 염색 작품의 공중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연계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3월과 4월에 각각 2회씩 열리는 특강에는 김한수(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정종미(한국화가, 재료학자), 노성환(울산대 명예교수), 윤재갑(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감독) 강사가 나선다. 5월 7일에는 금강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성파 스님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설날에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연계 참여프로그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옻구슬 소원팔찌 만들기)를 운영한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설날 당일 제외) 운영하며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한다. 또한 3~4월에는 성인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박본수 경기도박물관 관장 직무대행은 “이번 전시를 통해 수행자이자 예술가인 성파 스님이 전통문화에 기울여 온 관심과 미술 재료에 대한 탐구·실험정신을 대중이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무념으로 그렸으니 마음으로 보세요”



기자정담회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는 통도사에 살고 있는 성파라고 합니다.”

2월 9일 경기도박물관 전시마루에서 열린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스스로를 이처럼 소개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날 성파 스님은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가 아닌 깨달음의 자리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예술가로서 대중 앞에 섰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성파 스님은 예술세계의 정수가 담긴 옻칠 회화·도자삼천불상·도자대장경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성파 스님은 작품의 차별점을 ‘수행’으로 꼽았다. 스님은 “미술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격지심이 있어 그림을 내놓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양미술 답사를 했지만 결론은 ‘해 볼 만하다’였다”며 “내 작품이 서구의 것과 다른 것은 ‘도 닦는 사람[수행자]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차별점이 생긴다”고 술회했다.

성파 스님의 창작 과정은 구도에 가깝다. 당장 재료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정진의 연속이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의 활용한 스님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예술 장르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2025년 신작 옻칠 회화들이 대거 소개된다.

성파 스님은 “지난해 통도사 경내 보경호에서 옻칠 회화를 물에 띄우는 전시회를 열었다. 물에 그림을 올린 것은 방수·방충 등이 가능한 옻칠 회화라서 가능했다”면서 “여러 재료를 사용해 봤지만 옻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옻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기자정담회
‘한로축괴 사자교인’ 비유 들며
“相 얽매이지 말고 근본을 보라”

이처럼 구도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성파 스님은 “‘매화를 그려야겠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려 낸 그림이 아닌 아무 생각 없이[無念] 그려 낸 그림들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가진 마음의 거울로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전등록〉의 ‘한로축괴 사자교인(韓盧逐塊 獅子咬人)’ 비유를 소개했다. 한로는 명견이지만 던져 주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인간을 문다는 의미로 “상(相)을 쫓지 말고 근본을 보라”는 당부였다.

성파 스님은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잘 안 보인다. 마음의 거울에도 때가 끼면 상을 잘 구분해 낼 수 없다”면서 “각자 마음의 거울에 무엇이 비추는지를 잘 살피라”고 전했다.

더불어 스님은 ‘도를 닦는’ 행위가 특별하지 않다고 했다.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진리는 존재했다”고 강조한 성파 스님은 “우리 인생은 진리에 의해 ‘성주괴공’한다. 이뤄져 존재하다가 쇠퇴하고 공(空)으로 돌아간다”면서 “종교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주의 진리는 존재했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설했다.

작품을 본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내 작품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없이,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 없이 제작됐다”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전시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갈등과 분쟁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신중일 기자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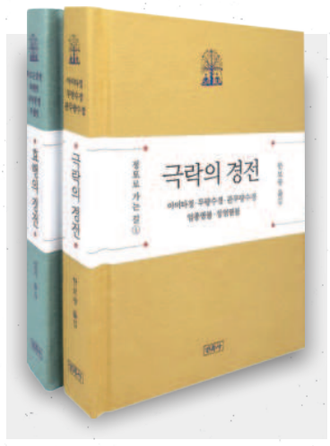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2/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스님	민족사	6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2	대승기신론 신강	지안	조계종출판사	7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3	무비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8	마하시 사야도의 12연기	마하시 아가 마하 뿐디따	행복한숲
4	연꽃법화경	원순	법공양	9	채근담	홍자성	현암사
5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10	미술관에 간 스님	보일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통찰의 체험	운주사	조셉 골드스타인	6	틱낫한 기도의 힘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2	법구경	민족사	석지현 옮김	7	금강경 핵심 강의	좋은인연	우학스님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운주사	함현준	8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4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9	왜 나무아미타불 인가	불광출판사	J.C.CLEARY/우익지욱
5	선심초심	김영사	스즈키 순류/정창영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의상 화엄사상의 현장을 복원하다



의상 스님의 화엄경문답
최연식 역주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3000원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사진 제공=동국대학교출판부



범어사 의상 대사 영정.
사진 출처=범어사박물관

원저자 찾은 의상 스님 강의록
163개 문답에 담긴 화엄교학 정수
변격한문 장벽 넘어 우리말 풀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국불교 사상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은 '자료의 빈곤'이다. 7세기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도 예외는 아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은 1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오늘날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10여 종에 불과하다. 의상 스님 역시 〈화엄일승법계도〉라는 독보적인 저술을 제외하면, 주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그 사상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엄경문답〉은 의상 화엄사상을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일본에 전해지던 이 책은 그간 중국 화엄사상을 집대성한 법장 스님(643~712)의 저술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고(故) 김상현 교수가 이 책을 지통 스님이 기록한 〈추동기〉의 이본(異本)으로 지목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여러 연구 성과가 보태지면서 〈화엄경문답〉은 의상 스님이 소백산 추혈(錐穴)에서 〈화엄경〉을 강의한 것을 제자 지통 스님(655~?)이 기록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엄경문답〉은 상권 81개, 하권 83개 총 164개의 문답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전승 과정에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문답 하나를 제외하면 전체는 163개 문답으로 정리된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이 〈화엄경〉 본문을 조목조목 해설하는 주석서가 아니라, 화엄교학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삼승과 구별되는 일승 보법(普法)으로서의 〈화엄경〉의 성격, 무주(無住)와 무분별(無分別)의 사유, 수행과 과덕으로서의 십지(十地) 등이 반복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삼승극과회심설', '배자체불설' 등 다른 화엄 문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논의들은 의상 화엄사상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혀준다.

이처럼 중요한 문헌임에도 〈화엄경문답〉은 그동안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이 쉽지 않았다. 신라 시대에 사용된 구어체의 한국식 한문, 즉 변격(變格)한문으로 쓰여 있어 문장 구조와 개념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국대 사학과 최연식 교수가 펴낸 〈의상 스님의 화엄경문답〉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역주본이다. 시대를 건너, 마치 현대 대학 강의실에서 오가는 토론처럼 쉽고 간명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원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소한 개념과 독특한 문장 구조는 반복적 검토와 주석을 통해 풀었다.

문: 일승에서의 '세 곳에 회향한다[三處回向]'는 무슨 뜻입니까?

답: 중생과 보리(菩提)와 실제(實際)의 세 곳에 회향할 때 회향하는 바가 없는 것을 회향이라고 부른다.

문: 이미 세 곳에 회향하였는데 어째서 회향하는 바가 없다고 합니까?

답: 보살이 행을 일으키는 것은 곧 중생을 위한 것이고 보살의 행은 중생이 없으면 일으키지 않으므로 중생에게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 때문에 보살의 행은 옛날부터 중생의 것이며 단지 지금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 아니다. 〈하략〉

역주는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화엄경문답〉을 저본으로 삼아, 일본 가나자와문고 소장 필사본 등과 대조해 교감했다. 또 변격한문으로 보이는 구절은 각주를 통해 정격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했다.

〈화엄일승법계도〉가 의상의 이론적 토대를 집약적으로 제시한 저술이라면, 〈화엄경문답〉은 그 이론이 실제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질문과 응답을 통해 어떻게 심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연식 교수는 "정제되지 않은 듯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공식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보충 설명을 통해 당시 화엄학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며 "〈화엄경문답〉의 재발견은 의상 개인의 사상을 넘어 의상 학파의 집단적 사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교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돼 왔나



불교공동체와 계율
신성현 지음
여래
3만원

초기불교부터 계율·교단 변용 고찰
율장은 공동체 살리는 지혜의 기록
출가자 규칙 넘어 사회 윤리로 해석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 '흡연 금지'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법과 규범이 일상에서 쉽게 무시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인류 역사상 법과 제도가 가장 정교해진 오늘날에도 이러할진대, 2500년 전 부처님 재세 시의 공동체 운영은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결성된 승가공동체가 여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율장이다.

〈불교공동체와 계율〉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계율과 불교윤리 연구에 천착해 온 신성현 교수가 그간 발표한 논문 가운데 10편을 엄선해 엮은 연구서다.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 인도에서 동아시아와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계율 정신과 교단 운영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율장을 '낡은 규범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공동체 운영 매뉴얼이자 사회적 지혜의 축적이라고 강조한다. 계율은 이상적 인간을 전제한 규범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1부 '초기불교의 계율과 교단'은 붓다 당시 승가가 갈등은 조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 준다. 특히 '승가갈마를 통해 본 재가와 출가의 관계'는 재가자와 출가자를 단절된 존재가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조명한다. 의지갈마·구출갈마·복발갈마 등 다양한 갈마 절차는 출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과 통제를 제도화한 장치였다. 이는 계율을 출가자 내부 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재가자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장해 사유하도록 이끈다. 이 밖에도 초기불교 승가에서 화상과 제자의 관계, 화합승의 실현, 가섭과 아난의 관계, 승가 분열의 양상 등을 다룬다.

2부 '대승불교의 계율과 교단'에서는 불식육계, 보살계의 성립, 동아시아 계율 이해를 중심으로 계율이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 중 '동아시아 계율 이해 연구'는 인도에서 성립한 계율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지며 각 사회의 윤리의식과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3부 '불교 계율과 윤리'는 율장에 나타난 남녀차별 문제와 원광의 세속오계를 재검토하며 계율을 둘러싼 현대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저자는 율장에 나타난 차별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인도 전통사회의 한계와 불교 사상의 평등 정신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가 다시 사회와 호흡하기 위해서는 계율과 교단이라는 불교의 뿌리를 새롭게 읽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계율을 한 가지만이라도 지킨다면 세상은 더욱 청정하고 화합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상담학, 이론에서 치유의 현장으로



불교상담학 연구
윤희조 지음
씨아이알
2만8000원

불교철학에 기반한 상담학 이론
심신 치유 '실천적 적용' 모색

전작 〈불교심리학 연구〉에서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의 이론체계를 제시한 윤희조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최근 펴낸 〈불교상담학 연구〉에서 구체적인 심리치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선심리학 연구〉 집필도 계획하고 있다.

1부 '불교상담의 주제'는 심리와 상담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인식론·진리론 등 불교철학 전반을 다루며, 나아가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삼명, 사념처, 칠각지를 제시한다.

2부 '불교심리치료'에서는 업·사무량심·몸·돌봄을 치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불교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핀다. 3부 '불교상담과 서구상담'은 성격심리학, 성격발달, 자아심리학, 실존심리학, 영성심리학을 통해 인간 이해를 확장하고, 융심리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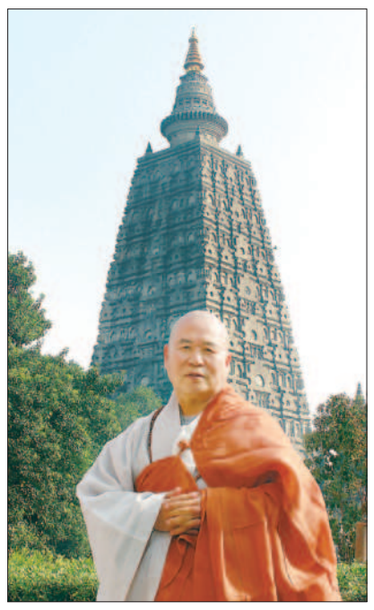
성지를 걷다, 가르침을 만나다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下
혜자 스님 글 · 사진
시간여행
2만원

순례문화 새 역사 쓴 혜자 스님
부처님 전법 여정 순례기 2권 완간
유적에 얽힌 교리 해설로 이해 도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마하보디 대탑 앞에 선 혜자 스님.
사진 제공=도서출판 시간여행



부처님이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설하신 영축산의 여래향실.
사진 제공=도서출판 시간여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네 곳의 성지를 일러 주며, 그곳을 생각하고 예경하는 공덕이 곧 부처를 뵙고 법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108산사순례기도회로 한국불교 순례문화의 새 역사를 쓴 선묵 혜자 스님(도안사 회주)은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전법 여정을 따라 성지에서 불교를 배우는 길을 펼쳐 보인다. 지난 2024년 9월 상권을 펴낸 데 이어 1년 5개월 만에 하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쿠시나가르의 4대 성지를 시작으로 라지기르·바이샬리·슈라바스티·상카시아의 8대 성지에 이르는 여정으로, 각 장소에서 설해진 교리와 경전, 인물과 사건을 촘촘히 엮어 낸다.

상권이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최초의 설법과 열반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갔다면, 하권은 불교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불교 교화의 중심지인 라지기르에서는 죽림정사와 제1차 결집, 영축산 설법, 세계 최고·최대의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을 통해 교단의 제도화와 대승 사상의 맹아를 살핀다. 부처님이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설하신 영축산에 오른 혜자 스님은 "산 아래로 번성했던 큰 도시의 흥망성쇠는 급류처럼 요동치다가 다 스러졌지만, 우담바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은 면면이 남아 우리에게까지 와 닿는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부처님이 처음 삭발염의한 바이샬리에서는 비구니 승단의 성립과 제2차 결집을 통해 불교의 포용성과 역사적 긴장을 함께 조망한다. 슈라바스티에서는 〈금강경〉을 비롯한 교리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상카시아에서는 도리천 강하 설화를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과 신앙적 상징성을 되새긴다.

각 장의 끝에는 지역의 불교 유적과 그에 얽힌 교리, 사상, 관련 인물 등을 소개해 성지가 과거에 머문 유적이 아니라 불교 사상과 신앙이 살아 움직였던 현장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2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서 혜자 스님은 "2006년도에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시작해 2008년 네팔에 가게 됐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 성지 순례에 나서게 된 것은 불보살님의 큰 가피"라며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부처님과 위대한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설한 부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불교를 바로 알고 정신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혜자 스님은?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연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 사서실장, 불교신문 사장, 중앙종회의원, 군종특별교구장, 청담학원 이사장, 혜명복지원 이사장, 풍경소리 대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108산사순례기도회와 도안사 회주로 있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명상과 사랑으로 새기는 법정 스님 글



법정 스님 결 따라 사랑을 잇다
변택주 지음
큰나무
1만7800원

스님 글 속 '뜻 사리' 찾는 과정
"명상과 사랑은 부처로 사는 법"

〈법정 스님 결 따라 사랑을 잇다〉는 법정 스님의 오랜 제자인 변택주 작가가 스님의 글을 화두 삼아 '뜻 사리'를 찾아가는 책이다.

저자는 2015년부터 여러 모임에서 법정 스님의 책을 소리 내어 읽고 뜻을 나눠 왔다. 지난해에는 '책을 켜다, 나를 켜다'라는 이름으로 매달 두 차례 스님의 책 〈진짜 나를 찾아라〉를 읽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모임을 열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스님의 '뜻 사리'를 '명상하기'와 '사랑하기'로 제시한다. "늘 깨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참답게 저를 바꾸며 안으로 깊어지는 것이 명상"이고 "따뜻한 눈길로 끝없이 보살피는 사이에 어리어 오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깨우침이다.

또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인 '눈부처'를 통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당부를 전한다. 곧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내면의 부처를 모셔 내어 날마다 새로운 부처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일깨움이다. 여수령 기자

번뇌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번뇌와 함께 춤춰라
함현준 지음
운주사
1만5000원

고승 20인 일화로 읽는 일본불교
일상성·자비 실천 등 보여 줘
'지금 여기의 삶' 사상·문화 영향

어느 날 한 농부가 물었다.
"스님, 부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논밭을 갈 때 정성껏 갈고, 씨를 뿌릴 때 마음을 다해 뿌리고, 추수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거두어들이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입니다."
"그럼 저도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이미 부처이신데 무엇을 더 되려 하십니까?"

–하쿠인 선사(1686~1768)

〈번뇌와 함께 춤춰라〉는 일본 불교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긴 고승 20명의 일화와 핵심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난해한 교학적 설명 대신, 짧은 이야기 속에 수행의 정수를 담아 일본불교의 면모를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는 일본불교의 특징을 대중성, 단순화, 일상성, 자비의 실천, 현실 긍정, 그리고 혁신의 용기에서 찾는다. 이는 일본불교를 신비화하거나 이국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수행자들의 삶을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하쿠인, 도겐, 호넨, 신란, 잇큐 등 이름만으로도 일본불교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사상 체계를 분석하기보다 삶의 한 장면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인용한 하쿠인의 일화는 일본 선불교의 생활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논밭을 가는 일상의 노동이 곧 부처의 행이라는 선언은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다. 타쿠안은 번뇌를 없애려는 집착 자체가 또 다른 번뇌임을 일깨우며, 도겐은 호흡하고 걷고 앉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겐신의 정토사상 또한 극락을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에서 구현되는 삶의 태도로 풀어낸다. 수행은 특별한 의식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일본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일본 사상과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도겐의 시간관은 근대 일본 철학의 존재론에 스며들었고, 선불교의 무심과 직관은 일본 특유의 미의식과 예술관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겼다. 정토사상의 인간관은 윤리 사상과 민중 신앙의 토대가 됐다. 책은 일본불교가 하나의 정신사적 흐름이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여수령 기자

나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장례희망
'너의 작업실' 작업인 18인 지음
북심
1만6800원

자기 죽음 준비하며 쓴 부고장
죽음 통해 삶의 소중함 통찰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절차인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희망〉은 언제가 다다를 삶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며 쓴 '장례식 초대장'이자 '내가 쓴 부고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독립서점 '너의 작업실'이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매일 글쓰기 온라인 모임'에서 회원들이 마음을 나누며 쓴 글을 모았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남기는 말은 한결같다. 그동안 고마웠노라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글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다. 늘 곁에 있는 사람, 집 앞에 핀 작은 꽃, 따듯한 커피 한잔 등 일상이 더욱 고마워지는 순간들이다. 여수령 기자

켜켜이 쌓인 오래된 마음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삶을 한층 가뿐히 살아가도록 돕는 원영 스님의 '마음 글밭'에서 노닐다!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영 스님 필사집
마음 글밭
원영 지음
240쪽 | 22,000원

공들여 선보이는 불광출판사의 첫 필사책

삶을 통과하며 다져진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이제 필사로 만나다!
하루 한 장씩 채울수록 한 겹 가벼워지는
100일의 마음 리셋 여정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머문 곳서 참회 기도, 나와 너 밝히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④ 준비 사항과 기도 순서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야 참회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반야 참회는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참회 기도의 형식을 취한 수행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야 참회는 참회 기도라고 해도 되고, 참회 수행이라고 해도 된다. 필자의 저서 〈반야 참회〉에서는 '참회 수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한국불교에서는 '참회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더 친근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반야 참회를 '참회 기도'라는 용어로도 표현하고자 한다. 다만 참회 기도는 반야 참회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염불이나 독경 등 다른 사항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그러면 먼저 참회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사항과 기도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하겠다. 준비 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장소 문제다. 반야 참회의 방법으로 하는 참회 기도는 집이든 절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입문자나 재가불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집이나 자기 처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물론 절에서도 그대로 하면 된다.

재가불자의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매일 또는 자주 참회 기도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숙달되면 절에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안 분위기도 안정적으로 바뀌게 돼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므로 반야 참회를 하려는 불자들은 '우리 집을 도량으로, 내 방을 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은 절에 가면 안 된다거나 절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또 신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교 신행은 선지식과 도반, 그리고 도량이 갖춰져야 하며, 단체가 결성돼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 정 절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지식이나 도반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점검과 격려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 안에서는 자기 방이나 거실 등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자신이 편한 위치와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된다. 특정한 위치나 방향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장소가 정해지면 방석을 놓고 절할 준비를 한 다음, 부처님 사진을 자기 자리 조금 앞에 놓는다. 사진은 반드시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등 다른 불보살도 가능하며, 사진 외에도 불화(佛畫)나, '불(佛)' 또는 경전이나 진언이 새겨진 액자도 좋다. 만약 장소나 상황이 사진을 비치하기 곤란할 때는 사진 없이 기도해도 된다.

참회 기도가 숙달되면 나중에는 불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지도하는 서울과 부산의 신도들은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서도 이런 방식으로 집에서 기도하며 천일기도를 마쳤다. 또 외국 여행 중에 호텔 방에서 기도한 불자도 있다. 절에 가지 않거나 불상이나 사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은 관습에 매인 고정관념일 뿐이다.

향은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되며 없어도 무방하다.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불단을 차린 경우가 아니라면 촛불은 되도록 켜지 않는 것이 좋다. 조명은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어두운 데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평상시 생활하는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도 시간으로 가장 좋은 때는 아침이다. 잠을 깨고 나서 세수 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에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자기가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매일 또는 자주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재가자들의 경우에는 너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오전에 하기로 했다면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 하면 되고, 저녁에 하기로 했다면 저녁 식사 후부터 자기 전까지 하면 된다.

반야 참회식 '참회 기도' 어디서든 가능

자주 참회 기도 시 집안 분위기 안정돼

집 안 편한 곳에 자리 잡고 조명 밝게

부처님 사진 앞에 두고 일정 시간 해야

할 일 다하지 않거나 음주 후엔 안 돼

삼배–독경–참회–염불–발원–삼배 순

그 외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기도한다는 핑계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불교 신행의 목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완성으로서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도나 수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바른 신행이 아니다.

둘째, 술을 마시고 기도하면 안 된다. 전날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시간에 쫓기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택배나 이웃의 방문 등 돌발상황으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의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잘 판단을 해서, 기도가 끝난 뒤에 움직여도 될 일이면 그냥 집중해서 기도를 계속하면 되고, 급한 일이면 기도를 중지하고 바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련이 되면 웬만한 일에는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까지가 참회 기도의 준비 사항이고, 다음에는 참회 기도의 순서를 알아보자. 반야 참회를 포함한 전체 참회 기도의 순서는 ①삼배 ②독경 ③참회(108배) ④염불 ⑤발원 ⑥삼배의 차례로 한다.

①**삼배** : 참회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부처님께 큰절 삼배를 하는 것이다. 절 한 번에 다음 귀의문을 한 번씩 마음속으로 외운다.

귀의문 :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본사(本師)라는 말은 '나의 근본 되는 스승님'이라는 의미이며,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佛]과 부처님의 가르침[法],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제자들[僧]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는 다짐이다.

이때 명심할 것은 절을 하면서 '살아 계신' 부처님께서 사진이 있는 그 자리에, 즉 바로 내 앞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과 깨달음을 분리해, 육신은 소멸해 없어졌지만 깨달음인 '법(法)'은 진리로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 진리인 깨달음을 인격화해 법신(法身), 또는 법신불(法身佛)이라고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 법신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므로, 결국은 한 몸인데 개념적으로 분리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부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다.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지만, 처음에는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 · 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학자를 만나다

신규탁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

전통 강원 교육의 현대화로 불자 교육 '재도약'



신규탁 이사장에게 교육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돕는 일이다. 신 이사장은 "경전은 종류가 많고,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도 다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넓게 펼쳐진 그물 속에서 각자가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라도 만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규탁 이사장이 〈화엄경 초역 해설〉을 출간하고, 월운 스님에게 책을 전달하는 모습.



2025년 3월 동산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신규탁 이사장. 취임식 행사 이후 기념촬영 모습.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재가불자들이 오랜 시간 불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한 축을 맡아 온 곳이다. 그러나 불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동안 숨을 고르며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변화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그 전환점에 신규탁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이 서 있다.

신규탁 이사장은 2025년 동산불교대학 제3대 학장으로 취임해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이어 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동산반야회 제8대 이사장으로 추대돼 오는 3월부터 교육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게 됐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동산불교대학은 6년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학교를 세우라는 과제를 받은 셈이지요.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조직을 다시 움직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교 교육은 결국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어 가야 할 일입니다."

동산반야회는 1982년 재가자들이 자발적인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다. 당시 사찰 법회는 의례와 기도 중심이었고,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설법은 드물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갈증에 무진장 대종사를 모시고 시작한 공부는 1992년 동산불교대학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재가불자를 위한 교육 제도와 법회를 마련하며 35여 년 넘게 운영됐다. 2년 과정의 불교대학과 3년 과정의 불교대학원을 통해 56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교계 대표 재가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강좌가 전면 중단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신규탁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할 해법을 동산반야회의 뿌리에서 찾고자 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조선 이후 이어져 온 강원(講院) 교육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선종의 사자상승과 강원의 교과과정은 오랫동안 한국불교의 기반을 형성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 그 맥락이 점차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신 이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교육은 흐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비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준비 중인 것이 '한글 불교전문강원'이다. 한문 경전 중심의 전통 강원 교육을 한글로 풀어내 현대인에게 맞는 재가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좌는 전통 강원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체계성을 유지해, 일반 불자들도 전통 불교 교육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은 총 6학기,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일반과정은 한글 교재를 중심으로 경전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심화과정은 원문 대조와 주석서 강독을 통해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두 과정 모두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 전통 강원의 주요 교과목을 2년에 걸쳐 완독하도록 설계됐는데, 강의 상당 부분은 신규탁 이사장이 직접 맡는다.



신규탁 이사장이 기획·출간한 〈화엄학총서〉. '한글 불교전문강원' 강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6년간 중단
현대인 패턴 맞춰 한글로 해석
〈화엄학총서〉 11권 중 9권 출간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면 충분"
재정 투명 · 안정적 운영이 목표

그는 이미 강의에서 활용할 〈화엄학총서〉 11권을 기획해 현재 9권을 출간했으며, 나머지 2권도 올해 상반기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전통 교재를 한글로 풀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원문을 함께 실어 해석의 정확성을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신 이사장에게 교육의 목표는 분명하다.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는 '장대교망 녹인천어(長大教網 綠引千魚)'를 빗대 "경전은 종류가 많고,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도 다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넓게 펼쳐진 그물 속에서 각자가 평생 의지할 경전 하나라도 만난다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교과목은 그물코 중 하나다. 그렇게 고해로부터 건져져 살아갈 길을 깨닫고 일생을 평안히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 포교 방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기존 음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법회는 이미 현대 생활 리듬에 맞춰 양력 요일별 법회로 개편해 운영 중이며, 전체 의례 역시 1시간 내외로 압축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례는 본질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다. 예경·공양·참회·발원이 담기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처님 말씀과 조사어록의 자의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수행 체험에 의한 해석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관적이지 않으면 의미도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명확한 교육 기준을 세우고, 각 사찰의 정기 법회가 정상화돼 재가 불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금의 교육관을 갖게 된 데에는 봉선사 강백 월운 스님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77년 봉선사를 찾아 월운 스님으로부터 경학(經學)을 배우며 불교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일어났고, 이후 약 2년 동안 머물며 학문에 몰두했다. 한자로 된 경전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경·론·소·초 등 방대한 불교 문헌을 찾아가며 학문적 기반을 다져 갔다. 월운 스님은 2023년 6월 입적했지만, 그는 입적 3일 전까지도 스님을 찾아뵈며 가르침을 나눴다.

특히 월운 스님이 남긴 게문 '탈연독초공겁외 불망도중괘구의(脫然獨超空劫外 不忘途中掛垢衣)'는 지금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홀연히 모든 것을 벗어나 공겁을 초월하더라도, 때 묻은 옷을 걸쳤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나름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과 소박함을 잃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그는 앞으로도 스님에게 배운 가르침과 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재정 관리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이끌며 체계적인 교육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며 "삼보에 귀의한 교육 단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해 배움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수 천번의 내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만 비교시 귀 법당의 마이크 가격이 수 백만원이라도 본사 마이크와 비교시 놀라운 차이 확인!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가격 50만원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0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7호 | 14 | 전면광고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3분(평지)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스님, 법사님, 보살님, 무속인 모두 환영
- 보증금 2천/월 40만(시설비 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주차 가능함

010-3574-3303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명당 절터 안내

- 150평(실사용 평수 200평)
- 산 중턱 사계절 마르지 않는 약수물, 도로, 전기 완비
- 250m 앞 청정바다 보시면 감탄
- 가액 : 대출1천 5백 안고 1억 1천 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7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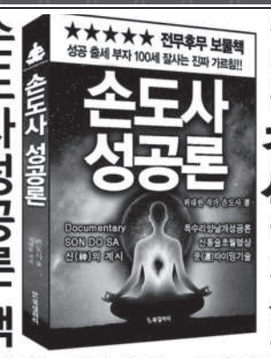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위빠사나 법사 구합니다
010-4474-8418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민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기간 : 26년 3월
▮자격 장소 : 남녀 누구나
집, 사암, 직장 등
▮학과 사주, 육효 한글작학등 25과
사무장모집 / 요양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인 환영
Daum NAVER 역학대통령
907-58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노동 밖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과제로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④ AI는 인간 노동의 종말을 가져 올 것인가

"누구도 일자리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스크린 한가운데에서 스크린 속 존재가 성큼성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마치 자신감 넘치는 성인 남성이 걷는 듯한 모습에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올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무대에서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존재는 새로운 전기차도, 초대형 디스플레이도 아니었다. 현대자동차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한가운데에 등장한 것은 인간처럼 걷고 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였다.

아틀라스의 안정적이고 당당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 시연을 넘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옮기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위험한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공장은 곧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 무대에서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를 포함한 로봇 기술을 향후 생산 설비와 물류, 안전 관리 영역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인간의 피로와 사고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은 기술적으로도, 경영 전략으로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남긴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CES가 끝난 뒤,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공장 투입 계획이 구체화되자, 노동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노조는 로봇 도입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의 상징으로 환호받던 아틀라스가,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AI 로봇을 두고 누군가는 혁신을, 누군가는 불안을 본다. 기술은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그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인간의 삶과 존엄을 둘러싼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화는 과연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밀어내는가. 아틀라스가 CES 무대에서 힘차게 걸어 내려온 그 순간부터, 이 질문은 이미 우리 삶의 일터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4년 프랑스 비바테크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일자리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택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간 노동은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과장이 아니라, 그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에 근거한 전망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CES에서 공개된 아틀라스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 기업들은 앞다퉈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 로봇들은 더 이상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다. 시각 인식, 자연어 이해, 강화 학습을 결합한 최신 모델들은 인간의 작업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며 적응한다. 물건을 집고 옮기는 수준을 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수정한다. 이는 곧 인간 노동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유연성과 현장 판단력마저 자동화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공장 로봇 투입 계획에 노조 반발도
> 인간 노동 대체 · 일자리 축소 위협
> 노동 중심 인간관의 종말 다가와
> 노동은 '관계' 확인하는 수행 방편
> AI 시대 인간의 참여 방식 질문해야



같은 AI 로봇을 두고 누군가는 혁신을, 누군가는 불안을 본다. 기술은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그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인간의 삶과 존엄을 둘러싼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화는 과연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밀어내는가. 아틀라스가 CES 무대에서 힘차게 걸어 내려온 그 순간부터, 이 질문은 이미 우리 삶의 일터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일론 머스크는 이 지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I 기본소득을 언급한다. "노동이 생존의 필수 조건인 시대는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엄을 잃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 이후의 사회 설계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에는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것인가. 자동화로 인한 노동 감소는 흔히 실업률이나 소득 격차의 문제로만 다뤄진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위기는 인간 정체성의 균열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해 왔다. 직업은 생계 수단이자 사회적 위치였고, 자기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한 언어였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이었다. AI가 이 질문에 답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답할 근거 하나를 잃게 된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 해도, 일하지 않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AI 자동화는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쓸모의 기준에서 탈락한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도 함께 품고 있다.

AI 시대의 노동 논의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효율'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싸게. 그러나 효율은 결코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효율은 언제나 비교를 낳고 비교는 배제를 동반한다. 더 느린 사람, 더 실수하는 사람, 숙련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당나라의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백장청규(百丈淸規)를 통해 노동과 수행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가르침은 흔히 근면 윤리의 표어처럼 오해되지만, 그 본래 맥락은 생산성의 강요가 아니라 삶의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수행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 규범을 세운 인물인 백장 회해는 고령과 병환 속에서도 공동체 노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자들이 일을 대신하려 하자 단식을 택했다는 일화로 전해진다.

그러나 백장이 말한 '작(作)'은 결코 현대적 의미의 노동 생산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실천, 다시 말해 존재로서의 참여였다. 백장은 수행자가 밥을 먹는 행위조차 타인의 노동에만 의존한다면, 그 깨달음 역시 공허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노동은 시장 가치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적 세계 안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몸으로 확인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인간이 계속 일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백장의 청규는 노동이 사라질 수는 있어도, 존재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만약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일 수 있다.

노동의 존엄은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소비자로만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다시 읽힐 수 있다.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단절된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비효율적일지라도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AI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더 많은 여가를, 더 깊은 관계를, 더 긴 사유의 시간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쓸모를 잃은 존재로서 자기혐오 속에 머물게 할 것인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 중심 인간관의 종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AI 시대의 진정한 윤리적 과제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있지 않다.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데 있다. 붓다가 가르친 해탈은 단순히 무위(無爲)가 아니라,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유였다. AI 시대의 노동 윤리 역시 그 자유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사찰과 민중 잇고 아픔 어루만져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④ 반가운 소식을 알리다, 까치

2026년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설 연휴다.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설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까치다. 설날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듯 까치는 설날을 대표하는 존재다. 반가운 소식을 알리는 까치처럼 새해에도 반갑고 행복한 일들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도 까치가 있을까? 물론이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황룡사(皇龍寺) 노송도(老松圖)에 날아들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까치 이야기가 있다. 이는 솔거의 천재적인 그림 솜씨와 더불어 까치와 불교의 관계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다. 이외에도 까치는 동양 신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친숙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불교문화와 신화 속 까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전 조속필 화조도의 까치(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벽화(조선 후기).



청도 운문사 작압전(조선 후기).



남원 광한루원 오작교(조선 후기).

운문사 창건을 도운 조력자

불교에서도 까치는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존재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청도 운문사(雲門寺) 창건을 도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까치 이야기다. 어느 날, 중국 유학을 마친 신라 보양(寶壤) 스님은 서해 바다를 건너는 도중 용왕에게 초대받아 용궁에 머무르게 된다. 보양 스님은 용궁에서 불경 염송과 법문을 용왕에게 베풀었다. 얼마 뒤, 이제 막 떠날 채비를 하는 스님에게 용왕이 "지금 삼국에 불법에 귀의한 군주가 없소.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鵲岬)이라는 장소에 절을 지으면 나쁜 일을 물리치고 불법에 귀의한 군주가 등장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금라가사(金羅袈裟)를 선물하고 아들 이목(梨木)에게 보양 스님을 모시게 했다.

이렇게 용궁을 떠난 보양 스님과 이목이 어느덧 현재의 청도 지역에 다다르게 됐다. 그런데 보양 스님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까치 무리가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을 계속 쪼고 있던 것이다. 보양 스님은 마침 용왕이 했던 작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이에 까치가 쪼아 댄 바닥을 파 보니 수많은 벽돌이 있던 것이다. 이에 보양 스님이 그 벽돌로 절을 지은 뒤 작갑사(鵲岬寺)라고 이름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과연 불법에 귀의한 고려(高麗)의 군주 왕건(王建)이 작갑사를 찾아와 운문선사(雲門禪寺) 편액과 수많은 땅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운문사에는 위 이야기를 알려 주는 작압전(鵲鴨殿)이라는 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에는 통일신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과 사천왕상이 봉안돼 있다. 창건 설화 속 까치는 보양 스님이 절을 지을 수 있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운문사 창건 설화 외에도 불교경전 속 까치는 재난이나 사건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홍명집(廣弘明集)〉에는 까치가 울면 적이 쳐들어올 징조라고 했으며,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실린 당(唐)나라 주력(住力) 스님의 죽음을 알린 것도 까치의 슬픈 울음소리였다. 이처럼 불교문화 속 까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요한 소식을 미리 알려 주는 예언자로 표현된다.

불교서 까치 중요 소식 알리는 존재
호작도서 피지배층 고통 치유 역할도
범어사, 선암사 등 사찰벽화로 표현
민초 어루만지는 불교 포용력 드러내

사랑의 징검다리

최근 복원된 경주 월정교(月精橋)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야경명소다. 이 월정교에는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 대사(元曉大師)와 요석 공주(瑤石公主)의 러브스토리가 전한다. 월정교를 건너다 물에 젖은 원효 대사가 향한 곳엔 요석 공주의 거처인 요석궁(瑤石宮)이 있었고, 이곳에서 두 남녀는 인연을 맺고 신라 대학자 설총(薛聰)을 낳게 된다. 이처럼 예로부터 다리는 먼 거리를 쉽게 왕래할 수 있기에 남녀가 서로 만나는 장소로 그려지곤 한다.

다리는 만남의 장소인 동시에 이별의 아픔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보여 주는 사례를 동양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리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까치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천을 곱게 짜기에 직녀(織女)라고 하였다. 직녀가 성장해 어엿한 여인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총각을 사위로 맞이했는데 소를 끌고 다니는 목동이기에 견우(牽牛)라고 불렀다. 이렇게 두 청춘은 결혼을 시작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제(天帝)가 두 부부에게 "너희들의 천직은 소에게 풀을 먹이고 천을 짜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갈라져 칠월칠석(七月七夕)에 한 번씩만 만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던 두 부부는 슬픈 생이별을 했고, 은하수를 중심으로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으로 끌려가 묵묵히 자신의 본업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법,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진 두 부부는 날이 갈수록 그리운 정이 가슴에 사무쳤다. 어느덧 칠월칠석이 됐다. 드디어 두 부부는 만나는 것이 허락됐지만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한없이 서로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견우와 직녀의 슬픈 눈물은 비가 돼 내렸고 이 소식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는 두 사람의 슬픈 사연을 해결하고자 은하수 근처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다리가 돼 드리겠습니다. 얼른 등에 올라타세요." 까치와 까마귀 떼가 만든 다리 덕분에 견우와 직녀는 드디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칠월칠석이 되면 까치들은 이들 부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고 한다. 바로 사랑을 연결해 주는 오작교(烏鵲橋)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사찰에 자리 잡은 민초의 대변인

얼마 전 필자는 '산신' 편에서 전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와 산신도의 호랑이가 판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산신도에서 주목할 대상은 호랑이 더피였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까치 수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시작된 두 동물의 케미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열풍에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더피와 수지는 까치와 호랑이 그림, 즉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모티프로 탄생했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더피와 수지는 호작도의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다. 연출되는 행동과 성격까지 호작도를 빼닮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 작품 속 더피는 화분을 넘어뜨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등 늘 어벙하고 덜렁대는 리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지는? 실수투성이인 더피를 한심하게 쳐다보는가 하면 잔소리를 퍼붓거나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도 한다. 이런 수지가 얄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호작도의 성격 그 자체다.

본래 호작도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닌 문배도(門排圖)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 성격이 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용맹한 호랑이는 사시에 덧니투성이, 맹한 미소를 짓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에 반해 까치는 그 눈빛과 기세가 사나워지며 호랑이에게 밀착해 덤벼드는 모습으로 변한다. 여기서 호랑이는 지배층인 양반을, 까치는 피지배층인 서민을 상징한다. 결국 민화 호작도는 벽사의 용도와 함께 부패한 양반을 풍자하는 성격까지 지니게 된 것이다. 당시 고통받던 민초들은 민화 호작도를 그리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불교에서 민화 호작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호작도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찰 벽화로 말이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법당각 곳곳에는 호작도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산 통도사부터 부산 범어사, 순천 선암사, 대구 동화사 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처럼 호작도가 사찰 벽화로 표현된 건 불교에 반영된 벽사 관념과 함께 당시 고통받는 민초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불교의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치며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는 까치, 까치의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에서 까치는 사찰 건립에 일조하면서 큰 사건을 미리 알려 주고 미술에서는 민초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했다. 각박하고 살기 어려워진 요즘 같은 시기,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반가운 소식이 오길 희망하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함께하려는 마음, 인연을 심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㉗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2025)

불교 용어 중 '인연(因緣)'만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풀이와 함께 사전에 올라 있는데, 여기에 운명의 '붉은 실'까지 덧붙어 붉은색 실이 두 남녀의 인연을 이어 준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도 인연을 잇는 붉은 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세자 이강(배우 강태오)은 "경들 뜻대로 하십시오. 동궁전 기둥만 안 뽑아 가면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무기로 정사는 신하들에게 맡겨 둔 채 상의원 안에 개인 옷방을 화려하게 꾸며 놓고 사치와 미모 가꾸기에 몰두하는 망나니 왕세자다.

세자 이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좌상(배우 진구) 때문이다.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좌상의 악행과 계략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이강의 아버지는 정신 이상으로 몰려 뒷방에 감금되다시피 있고, 세자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인 상황. 더구나 5년 전 세자의 모후인 중전을 시해한 혐의로 세자빈 강연월(배우 김세정)이 사약을 받는 일이 발생해, 세자를 더욱 세상과 등지게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짐작하듯, 이는 세상을 속이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이강은 연월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한 좌상에게 단 하루도 복수의 다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에 나선 이강 앞에 연월을 꼭 닮은 박달이(배우 김세정)라는 등짐장수가 나타난다.

보령의 대행수인 박홍난(배우 박아인) 밑에서 등짐장사를 하는 달이는 5년 전 사고를 당해 그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다. 원래 한양 대갓집의 노비였는데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도망치는 길에 부모는 죽고 겨우겨우 살아남아 부모의 지인이 거둬 줬다는 것이 달이가 전해 들은 자신의 지난 인생이다. 그때 달이를 거둬 준 이가 바로 홍난이었고 홍난은 자식이 없는 오빠 부부에게 달이를 입양하게 했다. 그렇게 달이는 돈 많이 벌어 만민이 평등하다는 서국에 가는 꿈을 꾸며 수완 있는 등짐장수로 씩씩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전국을 누비는 달이에게 고모 홍난이 경계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 추노꾼들이 아직도 달이를 쫓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녀문을 위해 시어머니에게서 자결을 종용받는 허 영감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양에 발을 들인 달이는, 자신이 죽은 부인과 똑같이 생겼다며 아련한 눈길로 쳐다보는 이강을 만난다.

사실 달이는 세자빈을 닮은 것이 아니라 진짜 세자빈 연월이었다. 사약이 내려질 것이니 피하라는 홍난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자결을 택한 연월이 얼음물에 몸을 던지자 뒤따라온 홍난이 겨우 구해 냈다. 정신을 차린 연월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홍난은 사약을 피해 살아남은 대역 죄인이 된 연월을 달이로 위장시켜 5년을 함께 살았다.

중국 설화 빌려 이강 · 달이의 사랑 전해
피가 물에 섞일 때 영혼 바뀌는 설정도 간절함이 일으킨 기적 보여 주는 드라마
"인연은 기적들이 쌓여 만들어져" 정의
사람 간 관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중국의 설화를 빌려 이강과 달이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해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첫 장면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소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때, 노인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영호책이라는 이가 얼음 위에서 얼음 아래 사람과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점쟁이 색담이 해몽하기를, 얼음 위는 양이고 얼음 밑은 음이니 음양, 즉 남녀에 관한 일입니다. 당신이 중매를 서 얼음이 녹는 시기에 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사서 〈진서(晉書)〉 '예술전(藝術傳)'에 실린 '빙하인(氷下人)' 이야기라고 출전을 밝힌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7세기에 당에서 나온 〈진서〉 95권에 '색담(索紞)'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실려 있다. 색담의 해몽대로 영호책은 태수에게 자기 아들과 장씨의 딸을 중매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얼음이 풀릴 무렵에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얼음 아래 사람, 즉 빙하인을 남녀의 인연을 이어 주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노인을 월하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하노인은 남녀의 인연을 이어 주는 또 다른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800년대 중국의 이복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속유괴록(續幽怪錄)〉에 '정혼점(定婚店, 혼인을 결정하는 객점)'이라는 제목으로 월하노인의 이야기가 전한다.

위고라는 사람이 어느 여관에 묵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큼직한 책을 뒤적이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옆에는 또 큰 포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는 붉은색 실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 책이 세상 사람들의 혼인의 인연을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하고는 포대 속의 붉은 실로 두 사람을 묶기만 하면 부부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고에게 길을 지나가는 한 아이를 가리키며 장래에 위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위고는 노인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인연이 닿지 않게 했으나 결국 14년 후에 만난 여인이 그때 그 아이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월하노인을 기념하려고 그 여관을 '정혼점'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제1회와 제2회의 부제가 이미 '홍연(紅緣)'인 것처럼 드라마는 빙하인과 월하노인과 붉은 실이라는 중국의 오래된 설화를 빌려서 이강과 달이의 애절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둘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추가해 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회에서 월하노인은 물에 빠진 연월을 살려 주며 홍난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 준다. 연월의 홍연을 봉인했기 때문에 지난 기억이 사라졌다면서 잃어버린 인연을 찾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그날 이후, 봉인의 표시로 연월의 손목에는 붉은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 이강과 영혼이 바뀌는 순간 이 붉은 상처에서 빛이 나며 상처가 사라져 버린다. 마지막 회에 나오는 월하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제 짝을 간절히 그러워하던 홍연이 제발 서로를 알아보라며 외친 아우성이자 원망이었다는 것이다.

이강과 달이의 영혼이 바뀌는 조건은 둘의 피가 물속에 함께 섞일 때다. 연월은 목숨을 버리려고 물에 뛰어들었고 이강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한 연월의 시신을 본 충격으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결국 둘에게 물은 죽음과 동의어인 셈이다. 피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강과 달이 영혼이 바뀐다는 뜻이다.

이러한 설정이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장면은 마지막 회다. 좌상의 공격으로 달이의 목숨이 위태롭자 이강은 일부러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고 달이의 몸으로 들어간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결국 숨을 거두는 달이의 몸의 이강의 영혼, 이강의 몸에 갇힌 달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손에 상처를 내고 다시 영혼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자신의 몸을 잃은 달이가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다 죽은 인연화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강과 달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달이 대신 목숨을 바친 이강에게, 둘의 인연을 이어 주기도 했고 반대로 인연을 봉인하기도 했던 월하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죽음을 앞둔 순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이강의 간절한 마음과 연월의 간절한 마음이 죽어 가는 인연화를 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연의 봉인을 푼 것이나 몸을 바꾸는 기적 역시 이강과 연월의 연심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드라마는 이강의 입으로도 "모든 기적들이 쌓아서 만들어진 게 인연"이라고 '인연'에 대해 정의한다. 결국 참다운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 준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으로 아름답게 이어 가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남녀 사이의 연분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 누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 주겠는가. 그러니 불교에는 월하노인이나 빙하인이나 붉은 실이 필요하지 않다.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두 주인공이 서로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그 조건을 물과 피로 제시함으로써 아무런 관계가 없던 남녀가 부부가 되어 혈연보다 깊은 관계를 만드는 일을 상징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편이 돼 주어야 하는 존재가 부부이고 가족이 아니던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붉은 실이 아닌 우리의 청실홍실로 남녀의 인연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살짝 남겨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대행 스님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충족하게 담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릇 아닌 그릇이 있다면 담아질 것이고 그릇이 없다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내면세계를 숭상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대성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서로가 공생, 공식 하며 공용, 공체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불(佛)이라고 하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서 이어 가는 바 없이 이어 가며 꽃과 꽃, 나무와 사람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전통신으로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의 물질적인 문제 50%는 깨지고 부서지고 변하고 화하고 죽고 살고 이렇게, 사대로 왔다가 사대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자성불이라는 것은, 본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는 그 자체의 근본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그런 데서는 변함없는 영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자성불이기에 갈 것도 올 것도, 또 미래로 갈 것도 과거로부터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수박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과거의 씨를 찾으러, 자기 씨를 찾으러 그 심은 자리로 가야만 옳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씨가 화해서 싹이 되고 싹이 화해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과거에 심었던 그 씨와 똑같은 씨가 바로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아직 심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해서 찰나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없다고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걷기는 걸었는데 뒷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사 것을 다 놓고 그냥 여여하게 지금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한 찰나를 뒤집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온통, 오늘날에도 타의에다가 내 영혼의 근본 생명을 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교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지 마세요. 불(佛)은 생명이요 교(敎)는 말씀이니,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알라신교 따로 있고, 일본 불교가 따로 있고 티벳 불교가 따로 있고 통일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를 벗어날 수 있게끔 체가 없는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그 근본을 알아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움죽거리지만 정신적으로 움죽거려야만이 남과 나를, 천체를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노동이라고 하고 정신의학, 정신과학, 천체정신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일체 만 가지 분야가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부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분야니까 요것이 제일 좋다', '요것이 제일 잘났다' 하고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승복이라는 것이 바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자체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 보이지 않는 데 무의 세계 50%에서 바로 유의 세계 50%로 발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세계 50%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산다 하면 50% 무의 세계에 걸려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승려든 승려가 아니든 가톨릭교도든 기독교도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주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벌어진 것이니 자기부터 믿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불가에 오신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통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지금 시쳇말로 하겠습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입력이 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통은 천체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데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천이통은 무전통신기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족통은 팩시밀리,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모습 없는 모습, 천백억 화신이라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을 바로 팩시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팩시밀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탐지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심안으로 보는 그 자체, 천안통을 바로 천체망원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심안이라는 것은 천체를 보고도 남음이 있지만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없는 그 다섯 가지의 오신통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면세계…, 간단히 비유해서 말을 해 본다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 몸속에 16억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억이라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하나의 체가 없는 마음이 한생각을 낸다면 바로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안팎 경계를 도모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바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묘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한 생각에 천당도 갈 수 있지만 한 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만 남한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마음으로써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물질로다 조금 보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끝 간 데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리때를 들고 스님네들이 공양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네들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나쁘든 좋든, 먹을 게 없든 있든, 자기 먹는 것에서 먼저 떠서 부뚜막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그날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 주고, 그 속쌀 뜨물을 얻어다가 폭폭 끓여서 식구가 먹기 전에 먼저 떠 놓은 미음 한 그릇을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난 스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어서 나무라도 한 짐 지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한 짐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고만 자기 은사한테 들켰습니다.

은사 스님이 "뭐 하려고 나무를 해 가지고 오느냐?" 하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줄 양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겟작대길 뺏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그냥 능거쳤습니다. "이놈아!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늘 어찌 때 버리고 나면 그만인 나무 한 짐을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나무를 짊어진 채 데굴데굴 구르다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스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너무나 상쾌해서 그때 거기에서 한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해부터 남의 마름을 얻고 남의 집을 얻고 그래서 잘살게 돼서 그 동네 일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무심의 마음 한생각에 그렇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병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깨치지도 못했으니까 못 한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쭉쭉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쳤든 안 깨쳤든 자기가 생각을 잘하면, 자기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들이 바로 아까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에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사회에서 괴로움이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기가 한 대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 입력을 다시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니 화탕지옥, 독사지옥 이런 지옥이 다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는 안락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에도 걸림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열반계로 드는 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육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체 만법을 정신계로 해 나갈 수 있고,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 보면, 내일모레도 또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각처에 지원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그래도 집에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할 여유가 없고 자식과 부모가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점점 점점 그렇게 여유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좋은 뿌리, 좋은 나무의 싹으로서 좋은 열매를 열리게 하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게끔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남편 뒷바라지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에 바로 뿌리가 돋워지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그것이 꽃이 피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향기가 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만 가지 맛을 내니 바로 한마음으로써 서로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늠름하고 떳떳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당당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셨고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설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느라고 애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저절로 나을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면 바로 육신의 모든 의식이 한마음으로 따라 줄 것이고,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가 돼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가지고 일을 해 나오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볼 수 없는 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데서 들을 수 있고, 한번 책정을 내리면 그대로 법이 되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나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너 마음부터 알고 사람부터 돼라." 하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 댈 것도 없이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파로써 전 세계에 두루 통신할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 안방에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체가 없는 마음이 일체 우주를 손안에 넣고,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누진,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으로써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도리는 숭상을 안 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하고 만날 보이는 물질세계, 학술적인 이론 또는 지식적인 문제로만 한다면 수박 겉 핥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나보다도 백배 천배 낫겠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팔십 살 백 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조그맣다고 버리고 크다고 갖고 이러지 마세요. 바로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바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자력, 통신력, 광력, 전력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지금 물만 없어도, 공기, 바람만 없어도 우리는 모두 못 삽니다.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만큼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면서도 이 안에 광력도 있고 자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안에서 쓸 거는 안에서 쓰고 바깥에 있는 거는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인 자가발전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걸 맘대로 굴릴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오신통에서, 바로 다섯 가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서 사대에 통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흙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 인간에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땅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기름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다가는 앞으로 닥치는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저렇게 지구 바깥으로 도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게 달아나가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딴 사람이 써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체가 없는 마음은 그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을 가게도 오게도 할 수 있는 자력의 능력이 얼마든지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교가 따로 있으며 어찌 부처가 어떠한 개별적인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천체가 돌아가는 이치,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치, 제자리걸음 하고 돌아가는 이치, 바로 불바퀴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요 마음을 내면 여러분이 법이요 육신이 움죽거리면 바로 여러분이 화신이라, 삼위일체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며 내면세계의 그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정립시키면서 바로 지배인으로서 리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장래에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한 주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구도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인간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야 어찌 이 세상을 한 주먹으로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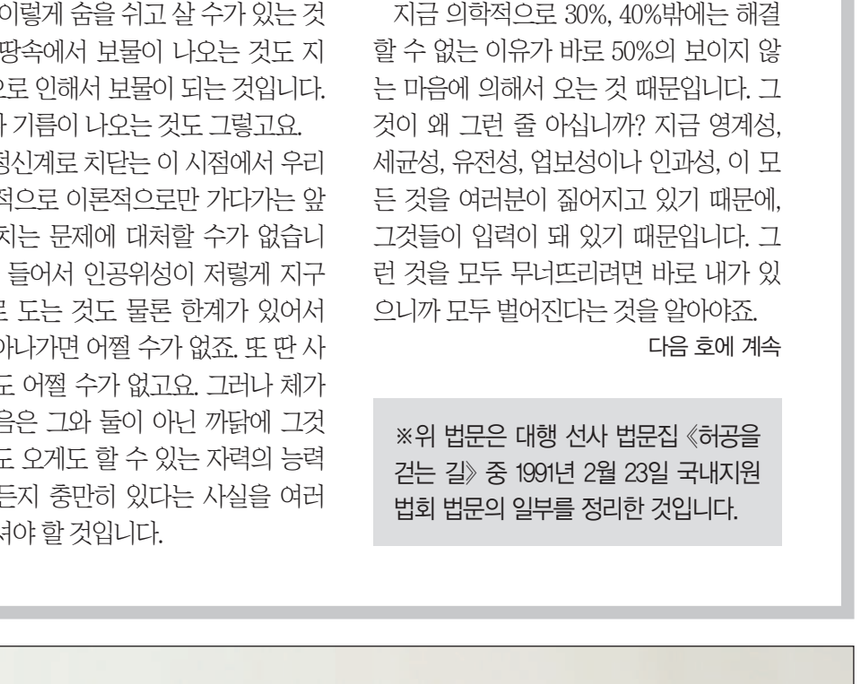
지금 의학적으로 30%, 40%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50%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업보성이나 인과성,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무너뜨리려면 바로 내가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③ '독한 말'의 갑옷 벗고 진심의 울림으로

"자녀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살 피난 소녀가 배운 '독하게 버티기'

상담실을 찾은 허상담 어르신(83세·여·가명)은 화려한 옷차림과 반듯한 예절 뒤에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한 정서적 경계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7살 어린 나이에 평양에서 부모님과 헤어져 홀로 남한으로 내려온 모진 역사의 풍파를 견뎌 낸 모습이 보입니다. 피난길 기차 위에서 굶주림에 쓰러지기도 했던 어린 소녀는, 어느 지역의 할머니 댁에서 얹혀살며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독하게 채찍질해야 했습니다.

특히 배고픈 시절, 구워지는 떡을 바라보며 한이 맺혔던 기억은 어르신을 더욱 강인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인에게 흠을 보이지 않으려는 강한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는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고, 자녀들에게 쏟아 냈던 날카로운 언어들은 역설적으로 그 불안한 속내를 감추고 삶을 지켜 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찾았으나 '마음'은 닫히다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중학교 시절 만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던 선생님은 어르신의 목소리를 알아봐 주었고, 그 인정을 통해 어르신은 비로소 '고아'라는 낙인을 지우고 활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대학 진학 대신 산부인과에서 6년간 성실히 일하며 스스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주체적인 삶을 일궈 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만난 남편은 바르고 정직한 직장인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인색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남편의 직장 생활까지 세심히 챙겼지만, 정작 자신의 정서적 허기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핍은 자녀 양육에서 '엄격함'과 '통제'로 나타났고, "호적을 파 버리겠다"는 식의 독한 말들은 어르신이 배운 자기 방어의 언어가 돼 자녀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관계를 '과업'으로 바라보는 조급함의 그늘

어르신은 상담 초기, 자녀와의 단절 원인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며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경직된 어르신에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감정의 공유보다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정받아야 할 숙제'처럼 인식됐습니다. "내가 사과했으니 이제 받아 줘야 한다"는 식의 결과 중심적 성향은 자녀에게 상처가 회복되기를 배려하기보다 정서적 압박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르신은 여전히 7살 소녀의 불안을 안고 '독한 말'이라는 담장 뒤에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날 선 언어, 속내 숨기며 삶 지킨 선택
관계 인식, 공감으로 기다려야 할 과정
자녀와 단절 받아들일 때 대화 시작돼

'심정소통'을 통한 인생의 재구성

상담 과정에서 가장 주력한 것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서를 반영하는 '심정소통(心情疏通)'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온 모진 세월을 단순히 '이해한다'는 인지적 공감을 넘어, 그 시절을 어떤 마음으로 견뎌 냈는지 묻는 정서적 공감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래"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 자신을 다스려 온 철저함이 사실은 어르신을 지탱해 온 거대한 강점이었음을 인정한 순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강한 어조가 자녀에게 상처가 됐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됐고, 자녀에게도 마음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함을 받아들이며 조급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통합 : 나를 돌보는 삶으로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잣대로 삼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돌보는 쪽으로 시야를 확장한 것입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신의 대화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게 된 것은 어르신에게 있어 가장 큰 심리적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상을 꾸려 가는 노년의 성숙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입안에 든 도끼를 내려놓는 지혜

초기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에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는 도끼가 함께 돋아난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어르신이 평생 자신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독한 말'은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어르신 자신의 내면까지도 깊게 베어 온 도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녹이고 말하는 이의 공덕이 된다." 어르신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화를 성찰하고 자녀의 아픔을 보듬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입안의 도끼를 내려놓고 자애의 꽃을 심는 과정입니다. 인연의 매듭을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정원을 먼저 가꿀 때 그 향기에 이끌려 자녀와의 인연도 다시금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56 등산과 무릎 건강

무릎 상태 따라 보폭·강도 조절해야

사계절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 가운데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등산만큼 대중적인 것은 드물다. 단풍을 보기 위해, 숲길을 따라 걷기 위해, 혹은 가파른 산을 오르며 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진료실에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등산을 계속해도 괜찮겠느냐"는 것이다. 주변에서 무릎에 안 좋다며 말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등산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등산은 정말 무릎에 해로운 운동일까.

등산이 무릎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하산 시에는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체중 이동이 발생하고, 착지와 동시에 충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이 부족하면 충격은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된다. 이미 연골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충격은 통증을 쉽게 유발한다. 이 때문에 "등산을 하면 무릎이 망가진다"는 경험담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등산이란 운동 자체보다는 무릎의 준비 상태와 사용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무릎 연골이나 관절에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리막길이다. 실제로 내리막에서는 착지 순간 무릎이 충격을 직접 흡수하게 돼 통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 특히 가파른 내리막이나 계단형 구간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런 이유로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기본이다. 등산 스틱이나 옆에 잡을 수 있는 밧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핵심은 무릎으로 버티는 등산이 아니라, 근육으로 내려오는 등산이다.

하지만 오르막길 역시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완만한 오르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단처럼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무릎 앞쪽에 체중이 집중되면서 내리막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구간이 반복되면 슬개대퇴관절 통증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같은 오르막이나 계단이라도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크게 달라진다. 앞발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리듯 오르면 무릎 앞쪽에 하중이 집중된다. 반대로 뒷발로 바닥을 차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힘의 중심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무릎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 차이는 반복될수록 통증의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절한 등산, 근력 강화 · 체중 관리 도움
통증 반복, 무릎 붓거나 관절염 시 주의
무릎 상태 점검하고 운동 강도 조절해야

그렇다면 등산은 무릎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등산은 허벅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이며, 이 근육들은 모두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등산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력과 균형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합 운동이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등산은 오히려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무릎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른 코스, 계단이 반복되는 구간, 통증이 누적되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등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무릎으로 무리하는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하산할 때마다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등산 후 무릎이 붓는 경우, 이미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경우, 허벅지 근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등산을 지속하기보다는, 무릎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릎 치료를 이야기할 때 필자가 늘 강조하는 점이 있다.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보호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등산을 계속할지 말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무릎에 부담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릎을 위한 운동은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등산은 무릎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무릎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산을 오르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무릎을 오래 잘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나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는 자세다.



김상효
거인병원 관절클리닉 과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문선애 마취통증의학과 | 박지혜 내과 | 이지욱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김상효 정형외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 이정향 마취통증의학과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우리 복지관은 지금 4.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약속



에코스테이션의 상시 운영을 돕고 있는 '에코푸리봉사단'의 모습.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에코스테이션은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까다롭거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쉬운 생활 자원을 수거해 다시 쓰임이 있는 새활용 자원으로 연결하는 주민 참여형 실천 공간이다.

주민들이 에코스테이션에 새활용 자원을 제출하면 세제, 샴푸 등 생활용품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참여-보상-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한 달 평균 거래 건수는 500건에 이를 만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간을 지켜 오고 있는 주체는 복지관의 '에코푸리봉사단'이다. 에코푸리봉사단은 에코스테이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원 재순환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자원 재순환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 캠페인, 업사이클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 활동을 이끌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공감에서 출발한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세대 간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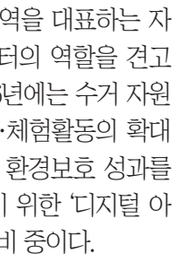
그 결과, 현재까지 에코스테이션을 통해 수거된 새활용 자원은 약 7.5t에 달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12~15t을 감축한 효과로, 소나무 약 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치다. 또한 수거된 자원은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약 300만원)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됐다. 자원 순환을 통해 만들어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며, 환경보호와 지역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에코스테이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임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가꿔 나가는 것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에코스테이션은 올해 운영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 재순환 거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해 2026년에는 수거 자원 품목·환경 캠페인·체험활동의 확대와 어르신 주도의 환경보호 성과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을 지역 환경 실천의 주체로 세우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자 한다. 수거 자원과 캠페인, 체험활동의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아, 세대를 잇는 환경 실천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여전히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역의 공공 플랫폼으로 복지관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에코스테이션은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혁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② 구급의 자비, 교육의 복지

사찰, 자선단체 역할 넘어 배움의 도량 돼야

불교의 자비(慈悲)란 '여락발고(與樂拔苦)'를 의미한다.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慈] 고통을 뿌리 뽑아 없애주는 것[悲]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수행자가 세간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수행하며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의 '구급불구빈(救急不救貧)' 철학을 통해 이 자비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불광산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선과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이 사찰 최우선 중점사업은 아니다. 불광산사가 지향하는 근본은 문화와 교육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인간불교'의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생명이 위태로운 재난의 현장이다. 불광산사는 평소 자선사업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재난 구호 활동만큼은 그 어느 단체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것이 바로 '구급불구빈'의 실천적 핵심이다. 급박한 재난[急]에는 즉각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고통을 멎게 하되, 가난[貧]은 단순한 물질 배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당시, 불광산사는 가장 엄격한 참선 정진 기간이었으나 재난 소식에 모든 스님이 수행관 문을 박차고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도량에는 필자를 비롯한 어린 동자승들만이 남아 절을 지켰을 정도로 전 대중이 구호 활동에 투신했다. 재난은 '급박한 상황'이기에 수행의 형식을 따지기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그때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구급 상황서 신속·적극 자비의 손길
가난 끊기 위해 물질 지원보다 교육
성운 스님 가르침, 불교복지 귀감으로

이러한 적극성은 종교와 신분의 벽도 허문다. 2009년 '88 수재' 당시 불광산사는 이재민 센터를 운영하며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고산족 원주민들을 품었다. 특히 성운 큰스님께서는 이재민들이 사찰에 머물며 '기인리하(寄人籬下)', 즉 남의 집 처마 밑에 붙어 지낸다는 위축된 마음이나 소외감을 추호도 느끼지 않게 하라고 엄격히 당부하셨다. 필자는 당시 물자 담당자로서 현장을 지켰는데, 대중 스님들은 이재민들과 함께 자고 먹으며 고락을 같이했다. 사찰 내에서 기독교 예배가 거행되고, 심지어 도량 안에 이재민들을 위한 흡연 구역까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동사섭(同事攝)의 현장은 구급 순간에 조건 없이 하나가 되는 불광산사의 자비 정신을 증명했다.

하지만 긴급 구호가 끝난 뒤 큰스님께서는 수해 지역의 건물 복구보다 도서관 중건에 전력을 다하셨다. 밥 한 그릇은 한 끼의 허기를 채우지만, 교육은 일생의 가난을 끊어 내는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필리핀 태풍 수해 때도 대중들이 밤새워 물자를 준비하며 정진했던 이유는, 그 긴급한 고통을 빨리 덜어 줘야만 이재민들이 다시 배움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비는 눈물로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지혜는 그 눈물을 닦고 스스로 걷게 하는 힘이다. 구급(救急)의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투신하고, 불구빈(不救貧)의 안목으로 교육의 토대를 닦는 불광산사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불교에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사찰이 단순히 자선단체의 역할을 넘어, 대중의 무명을 밝히고 자립의 지혜를 가르치는 '배움의 도량'이 될 때 부처님의 자비는 비로소 이 땅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지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⑥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풍경

손등과 손바닥을 한눈에 볼 수 없다.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의 그림에서라면 모를까. 문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보았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에서. 이 대웅전의 문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 여는 문이다. 문의 안과 밖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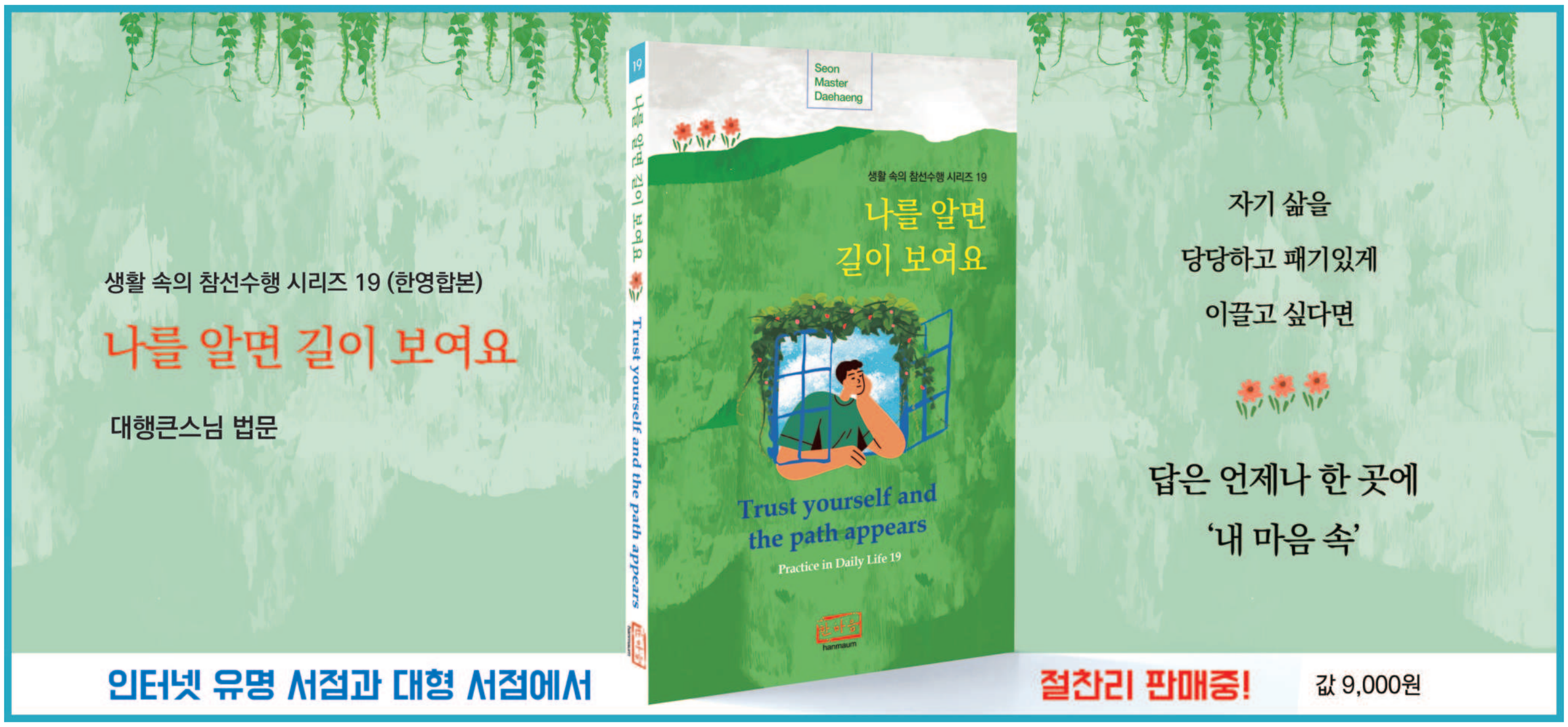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전면은 5칸인데 칸마다 2짝씩 모두 10짝의 문살에 연꽃, 모란, 국화를 새겨 올렸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간은 빗교살 위에 활짝 핀 여섯 잎의 꽃을 새기고 육모 테두리를 잎으로 감싼, 품이 많이 든 정교한 꽃살문이다.

이 대웅전은 북쪽으로 앉았다. 한국 전통 건축의 남향은 집 안으로 빛을 오래 들이기 위한 필요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웅전은 관습과 실용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터의 남쪽이 산으로 막혀 있고 북쪽이 열렸기 때문이다. 절 뒤 좌우 계곡이 북쪽으로 흐르고 앞에 저수지가 있으니 '배산임수'가 되겠는데, 어설픈 풍수쟁이 흉내는 이쯤에서 멈춘다. 절 북쪽에 마을, 서북쪽으로 논산시가 지척이다. 그것이 북향의 이유다. 세상 등지고 앉은 부처님은 없다.

이 글에서 '논산 쌍계사'라고 쓰면서 몹시 불편했다. 만약 지리산 쌍계사였다면 굳이 '하동'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고약한 태도인가. 사실 정도 차이일 뿐, 인간의 인식 대부분은 그렇게 전도돼 있다. 피카소보다 앞서 쌍계사가 북향으로, 꽃문으로 그것을 일러 주었다. 내외불이, 자타불이, 성속불이…. 아득히 멀다.

손영자 작가


논산 쌍계사 대웅전.



‘핵개인’ 시대, 네트워크로 답하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지금은 ‘핵개인’의 시대라 한다. 각자는 자신의 화면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파편화된 핵개인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모두가 서로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연기(緣起)의 진실을 다시 드러낸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거대한 연결망 안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연결을 방치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엮어 낼 것인가에 있다.

조계종이 위촉한 SNS 청년 서포터즈는 이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이다. 불자 대학생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불교를 해석하고, 뉴미디어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참여형 시도다.

이는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불교를 말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또래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 접촉이 아닌 수동적 이미지의 수용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위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불교의 얼굴을 대신한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감각으로 불교를 표현하느냐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다. 청년 서포터

조계종 서포터즈, 파편화된 시대 응답
불교 표현 주도권 청년에 돌리는 시도
능동적 신행과 네트워크 확장 이끌어

즈는 그 주도권을 청년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시도다.

짧은 영상 하나, 카드뉴스 한 장, 한 줄의 문장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의 매개다. 같은 세대의 언어로 전해질 때 불교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이 된다.

참여형 구조는 소비를 넘어선다. 스스로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신행은 능동이 되고, 네트워크는 확장된다.

종단 차원에서도 연결의 구조는 중요하다. 각 사찰과 각 부서, 각 포교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에너지는 분산된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면 시너지가 생긴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채널로 이어지고, 하나의 활동이 다양한 세대로 확산될 때 영향력은 배가된다. 뉴미디어는 그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청년 SNS 서포터즈는 그 첫 매듭이다. 작은 규모일지라도, 이 경험은 향후 더 많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학과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구조가 형성될 때 불교는 고립되지 않는다. 연기의 가르침은 교리로 머무르지 않고, 관계망 속에서 실천된다.

핵개인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설계다. 불교가 가진 연기의 지혜를 오늘의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일, 그것이 청년 서포터즈가 갖는 상징성이다. 포교의 미래는 단일 채널의 성과에 있지 않다.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생겨나는 시너지에 있다. 지금은 그 연결을 시작할 때다.

우리 사회의 시민과 보살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에서 시민에 관한 이야기는 늘 이상과 현실 사이 어디쯤에서 머물곤 한다. 이상적으로 시민은 자신의 삶과 이 사회의 주인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온다. 우리 역사에서 시민은 3·1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민주공화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격 등장했는데,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한 세기를 넘기고도 온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셈이다.

최근 내란 사태는 민주화 과정과 시민교육의 지난한 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던 우리 민주화 수준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주저앉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몸으로 국회 앞 군인들을 막아 낸 시민들이 있었고, 그 외침에 부응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상식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개인 방송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칠고 왜곡된 음성과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일상화되기도 했다. 더 악화하면 힘들게 이룩한 민주적 시민사회가 그런 자들의 목소리만

최근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 후퇴돼
상식 넘은 극단적 목소리도 이어져
시민사회 위기 대안으로 보살 떠올려야

넘쳐 나는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인 시민과 시민사회는 그 뿌리를 서구의 고대에 두고 있다. 참여를 강조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전통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로마의 공화정이 혼합한 형태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민주공화국이란 설명이 대표적이다. 시민사회에서 자유를 전제로 하는 참여와 법을 전제로 하는 평등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민사회에는 그런 수입된 시민상과 함께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외치면서 등장한 동학(東學) 전통의 시민상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능하게 한 3·1운동을 이끈 주축이 바로 이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였고, 동학은 다시 불교와 유교, 도교를 포용하면서 새 시대를 여는 개벽을 꿈꾼 사상이자 운동이었다.

서구의 시민 개념이 근대를 거치면서 상실한 것은 시민 개인의 수행(修行)이었다. 민주공화정이 시민의 정치적 능력과 함께 덕성을 필수적으로 요청함에도, 시민교육에서도 덕성은 각자의 몫으로 돌려지거나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뒤로 물러났다.

동양 전통 중에서도 도교는 지나치게 세속화됐고, 유교 또한 학문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수양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 불교만이 수행을 통한 지혜 추구와 보시를 통한 자비 추구라는 두 날개를 지켜 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남았다.

이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인간상이 바로 보살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규명할 수 있을 새로운 한국 시민(K-시민)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붕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社 說

바다 아래 이름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일본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또 한 점의 유골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2월 6일 관음종이 현지에서 봉행한 희생자 천도재 도중 전해진 소식이었다. 80여 년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던 이름 없는 희생자가 다시 햇빛을 마주한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민간의 끈질긴 노력과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유해 수습에 참여했던 대만인 잠수사 웨이 수 씨가 이튿날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국적을 넘어 인류애로 바다에 뛰어든 이의 희생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희생자를 찾는 길 위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한 현실은, 현재의 유해 수습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해 수습, 시민·종교 헌신만으론 한계
한일 정부 조사단 구성해 책임 다해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1942년 2월 3일 발생해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다. 특히 조선인 노동자가 다수였던 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 그럼에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생자들은 바다 아래 방치돼 있었다.

이 긴 침묵을 깨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었다. 일본 시민단체 ‘새기는회’가 중심이 되어 갱구를 찾아 잠수 조사를 추진하고, 관음종은 2017년부터 현지 위령재를 봉행하며 유해 수습 활동을 후원해 왔다. 지난해 8월 인골 4점이 발견된 데 이어 올해 추가 유골이 수습된 것도 이러한 민간의 헌신 덕분이다. 현대불교신문과 관음종이 업무협약을 맺고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해저 갱도에서의 유해 수습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 장비,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낮은 수온과 시야 확보의 어려움,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의 작업은 민간의 열정과 후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웨이 수 잠수사의 죽음은 더 이상의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일본 정부도 2월 11일 “한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희생자의 존엄을 지킬 책무가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양국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해저 구조 전문가와 첨단 장비를 투입해 안전한 발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조세이탄광의 문제는 과거사 갈등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인도주의의 문제다. 바다 아래 묻힌 유해 한 점에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기억,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담겨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민간의 헌신 위에 국가의 책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역사의 상처는 봉합될 수 있다.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을 끝까지 찾아 고향의 품으로 모시는 일, 그것이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캄보디아

세계는 한 꽃송이!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 현지방문: 2026년 3월
-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